



◇ 루이스 티파나가 1893년 직접 만든 스테인글라스 “천지창조”(Creation). 청년 언더우드와 다니던 뉴욕의 라피엣에 비뉴장로교회 친교실 한 벽을 장식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작품은 100년이 넘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증거하고 있다. 두 교회의 우정을 생각하며 새문안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호 표지에 담는다.
(글/ 편집자, 사진/ 라피엣에비뉴장로교회)

2004년 9월호 통권 193호
2004년 9월 5일 발행
발행처 |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새문안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인 | 이수영
편집인 | 간영석
주 간 | 이청근
부주간 | 장석훈
편집장 | 원영희
편집위원 | 박준익 김창란 김용근 나순구
 서숙자 김사라 박은숙 윤익영
 박범례
취재기자 | 나행자 김기숙 김현찬 박혜숙
 석영호 정영희 심정남 강민주
 조현아 황윤선
사진기자 | 양성모 김희찬
간사/전산편집 | 김혁주
등록번호 | 서울 라09085 등록일 2001. 7. 25.
인쇄인 | 장연식(삼광인쇄소)

교회창립 | 1887년 9월 27일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42
전화 | 733-8140~5,
 738-5996(홍보출판부 직통)
팩스 | 733-8070
E-Mail | hongbo@saemoonan.org
Homepage | www.saemoonan.org

9월의 교회력 | 창립 기념의 달

5일(주일) : 제직회 · 8교구 헌신예배
12일(주일) : 제2남선교회 헌신예배
19일(주일) : 의료선교회 헌신예배
26일(주일) : 교회창립주일 찬양예배

차 례

강단 / 인격 존중의 계명 이수영 목사	2
117주년 창립축하 메시지/라피엣 에비뉴 교회 데이빗 다이슨 목사	4
연중 기획 [창립기념특집]	
사랑을 실천하는 삶 새문안교회와 사랑의 선교, 그 역사와 미래	
교회사랑과 이웃사랑 실천 김인수 목사	5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증언하고 봉사하는 교회 노정현 장로	7
선교의 불꽃이 살아있는 라피엣 에비뉴 교회 원영희 집사	9
새문안교회 사랑의 선교 역사	
예배부 나행자 집사 전도부 · 심방부 · 새교우부 김기숙 권사	10
친교봉사부 · 경조부 황윤선 집사 홍보출판부·정보통신부 김창란 권사	
남선교회 박준익 안수집사 여전도회 박은숙 권사	20
특별기고/ 김영주 목사 추모 예배와 그 의미 윤경로 장로	

새문안 울타리

새문안소식 편집실	24
현장 스케치/깨끗한 서울 가꾸기 박범례 집사	31
광복절 산상 기도회 나행자 집사	28
교회학교 코너/ 이야기터 경신중학교 국토순례 이혜준 손수빈 김은정	42
중등부 여름 수련회 박경석 교사	43
여름성경학교 특별 화보 양성모 집사	44
작은바울 우리들이 울며드린 기도가 씨앗이 되기를 김택수 학생	41
만나고 싶은 사람/ 황용환 재직 안수집사 심정남 집사	33
인터뷰 / 이광자 총장 · 김병철 목사 · 조병린 권사 편집실	35

믿음으로 사는 삶

나눔과 섬김/ 윤익영집사 특강 - 기독교 미술에 나타난 천사 고영준 집사	50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대 수련회 소식 하나찬양대 박지선 교우 새로핍찬양대 안강현 집사	51
새남찬양대 전종우 집사 새온찬양대 박수현 집사 한기림찬양대	

젊은이 마당

대학부/ 결정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훈련 공민호 집사	57
푸른선교현장/ 네팔에 주님나라 임하소서 장지훈	59

논 단

사회와 기독교/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 백승현 안수집사	62
--	----

쉬며 배우며

61 성경퀴즈 서경애 권사	
64 빛으로 소금으로 박은숙 권사	64 새문안만화경 석영호 집사

“인격 존중의 계명”

<마5:21~24>



이수영 담임목사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6계명을 보다 넓게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의 생명을 끊거나 위협하는 일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터 누구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제6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발전시키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1~24)”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

제에 대해서 화내는 것, 바보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홍보는 것도 다 지옥 불에 들어갈 죄이며 살인하는 것과 동등한 행위로 규정된다는 말입니다.

또 단지 생물학적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이 제6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생명보다 더 중한 것이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생명보다 더 귀한 명예를 짓밟는다면, 그것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자유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자유를 박탈한다면, 그것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자유·인격·명예·순결·감정·의지·건강·평화로운 삶, 유쾌한 삶, 고귀하게 품위 있게 사는 것, 질 높은 삶을 살 권리 등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따라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그 사람이 생명과 같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지켜 줄 줄 알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납치·감금 같은 것은 살인행위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온갖 종류의 언어폭력, 중상모략, 근거 없이 남을 공격하는 모든 언행,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 등도 다 살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6계명은 인격 존중의 폭넓은 계명입니다.

또 남의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강요함으로써 수치감을 주고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모두 살인행위에 준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버섯이 담배 피우는 것도 살인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오·폐수를 마구 방류하는 행위 등도 살인행위입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물에 공업용 화학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법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커지면 사람을 죽이게 되기 쉽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해하다가 얻어맞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인격을 손상시켜 살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잘 지키면 살인이 일어날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본문 중에서>”

물질을 섞는 행위, 분명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지하는 행위, 그냥 내 버려두면 작업하다가 손발이 잘리는 사고가 날 것 뿐히 알면서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 등도 모두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실공사를 하는 것,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다 제6계명의 정신을 범하는 행위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조용하게 잠을 자야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 소음을 만들어 내고, 건강해야 할 사람에게 온갖 먼지를 뿜어대며, 멸정한 사람을 소위 왕따 만드는 일 등 남에게서 평화롭고 유쾌하게 살 삶의 권리를 짓밟는 모든 행위도 제6계명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형식으로 주어진 제6계명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13:8)”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사랑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9~10)”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랑하는 방법, 즉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온전한 의미를 따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13:4~6).”

여기에 우리가 제6계명을 바로 지키는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법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커지면 사람을 죽이게 되기 쉽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해하다가 얻어맞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인격을 손상시켜 살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잘 지키면 살인이 일어날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려다 보면 상대방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다가 남을 죽이거나 자기가 되레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살인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살인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6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6계명을 주신 진정한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A Message to Saemoonan Church on the 117th Anniversary.

- 창립117주년을 맞이하는 새문안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

한국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저는 새문안교회 창립110주년 기념예배 때 새문안교회를 방문했던 일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우리 두 교회의 성도들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라피엣애비뉴교회는 117주년을 맞는 새문안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증거 해 온 분들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그 끈은 복 되도다.”

미국 뉴욕 브룩클린
라피엣 애비뉴장로교회 담임목사
데이비드 W. 다이슨 목사



“To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Grace to you and peace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How well I remember my visit to your church for the 110th Anniversary. The effect of that trip was to create a bond between our congregations which cannot be broken.

We extend to you our heartfelt best wishes for your 117th anniversary. You have demonstrated to the Korean peopl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lest Be the Tie that Binds Our Hearts in Christian Love.’ ”

Rev. David W. Dyson
Pastor
Lafayette Avenue Presbyterian Church
Brooklyn, New York, U.S.A.

117년 한국교회 역사의 시작에 새문안교회가 있다.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랑의 정신을 이어 받은 새문안교회는 복음의 진리 전파와 사랑의 말씀 실천으로 한국교회의 본이 되어왔다. 빈곤과 억압으로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언더우드의 선교 열정은 예수님 사랑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험벗고 굶주린 소외 계층을 지나치지 않는 행위는 곧 예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문안성도들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2004년도 교회표어에 의거해 《새문안》지는 2004년 연중기획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정했다. 창립 117주년 기념 특집호인 9월호의 주제, **새문안교회와 사랑의 선교, 그 역사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헌신에 앞장선 각 부서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한 탐방 기사와, 선교를 통해 본 새문안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논문을 실는다. (편집자 주)

새문안교회와 사랑의 선교(I)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

전도인 선교사 파송, 교도소, 산업 선교, 경찰 선교, 도서지방 선교 등



김인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 역사신학)

새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모교회(母教會), 즉 어머니 교회이다. '어머니'라는 말은 사랑과 직결된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강한 면이 있다. 오늘에 이르러 인간들 중에 어미 사랑을 버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성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분명하다.

새문안교회는 한국에 처음으로 내한한 언더우드에 의해 시작된 교회이다. 언더우드의 한국인 사랑과 한국인에 대한 선교의 정신은 가늠하다. 그 사랑에 의해 새문안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더우드는 1884년 뉴저지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계통인 뉴브룬스윅신학교를 졸업한 후 뉴브룬스윅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려고, 사랑하는 약혼녀를 포기까지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한 것은 사랑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결단이었다. 이런 언더우드의 사랑의 정신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새문안교회이다. 따라서 새문안교회는 한 선교사가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그 사랑에 기초하고, 또 그 사랑에 의해 선교와 봉사가 이어온 교회이다.

새문안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실천은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별된다. 교회 사랑은 무엇보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새문안교회는 1887년 9월 언더우드의 사택이 있었던 정동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교인이 늘어나고 더 큰 장소가 필요하게 되자, 새로 세운 문 안으로 이사오면서 '신문내(新門內)교회' 즉 '새문안교회'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곳으로 나온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증가하여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필요에 따라 교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건축헌금을 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기에 이른다. 당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무척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호구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때, 온 교회가 힘을 모아 건축헌금을 하고, 헌금을 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몸으로 헌신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낙성식을 하게 되었다. 1895년 국모 명성왕후가 일제의 잔악한 흉한들에 의해 살

해당하고 온 민족이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새문안교회는 민족의 새 희망을 이 예배당 건축으로 일깨워주었다. 온 교회가 보인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그뿐 아니라, 새문안의 가족들은 예배당을 신축하고 나서 반년도 채 안 된 그 이듬해에 바로 또 다른 예배당 신축을 의논하는 놀라운 교회 성장과 예배당 신축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새문안교인들의 교회사랑, 그리고 전도의 열심에 기인한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새문안교회의 교인들이 보인 구체적인 이웃 사랑은 선교로 확산되었다. 예배당을 신축한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동학난과 명성왕후 시해, 청일전쟁, 계속되는 흉년과 전염병, 일제의 노골적인 침탈야욕 등 헤쳐나가기 힘든 민족적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새문안 식구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과 민족의 영적 구원에 있음을 절감, 전도와 선교의 최전선에 나섰다. 새문안교회의 자체 교인 확충에 이어, 각 처에 나가 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여러 곳에 성경강습소를 개설하여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30~40여 처에 이르는 곳에 포교소를 설치, 회집을 하였다.

어머니교회로서 새문안은 서울의 여러 교회가 설립하는데 직·간접으로 공헌하고 있다. 1894년 연못골(연동)교회가 창립될 때 언더우드를 도와 일하던 권서(勸書) 서상륜과 선교사 그레험 리가 협력하였고, 송동교회·남문밖교회·안동교회·묘동교회 등이 창립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언더우드의 활동은 황해도의 작은 갯마을 솔내(松川)에까지 이르렀고, 1887년 봄에 그 곳에서부터 언더우드의 권서 서상륜의 동생 경조 외 2인의 청년들이 서울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 솔내교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교부의 도움 없이 순전히 교인들 자력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언더우드 목사의 집례로 헌당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일들이 새문안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바로 언더우드의 선교지였기 때문이었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 즉 영등포·시흥·광명·안양·김포·고양 등지도 역시 언더우드의 선교활동과 연결하여 새문안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전도인을 파송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자력으로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주게 하고 독립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 하였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 하나가 전도였음을 잊지 않고 각 처에 교회를 세운 새문안 교우들은 1954년 북아현구역의 교인들이 전남 송산포에 동수리교회를 설립하고 박덕수

전도사를 파송한 일을 위시하여 여러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인을 파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복음전파의 사랑의 손길은 내지선교에 그치지 않고 해외 선교에까지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1966년 멕시코에 우상범 목사를 파송하여 미주지역 이민족 선교에 앞장섰고, 1968년에는 대만에 김응삼 목사를 파송하여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특히 여전도회는 선교 사업에 열심을 다해 어려운 중에도 선교사업을 위해 전도인들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성경·찬송가·타자기 등을 사서 보내 주어 선교사역의 수고를 덜어 주었다. 여전도회는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지역이었던 경기도·강원도·충청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산재한 수십 교회에 전도비를 보내고 여러 기관에도 전도의 지경을 넓혀 갔다. 여전도회의 선교는 교도소선교, 산업선교, 기동자 운전기사 신우회, 서대문, 종로경찰서의 경찰선교, 울릉도를 위시한 도서지방의 선교 등 그 사업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교제·봉사·교육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 선교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 선교에 있기 때문이다. 초기교회로부터 이제까지 선교 없이는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요,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은 곧 교회가 선교에 의해 유지되고 지탱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다.

창립 2세기를 넘긴 새문안교회는 한국의 어머니교회로서, 모든 자녀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 딸은 그 어머니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한다. 새문안교회에서 분리되고, 창립된 모든 ‘딸교회’들은 ‘어머니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 어머니교회가 가는 길을 답습케 되어 있다. 새문안은 그런 의미에서 부러워할 만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역사가 오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우리 나오는 교훈을 눈여겨보고 경청해야 한다. 새문안이 어떤 때 성장을 지속했고, 또 어떤 때 정체되었는가를 살펴, 이 시대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에 앞서, 지워져 있는 책무를 과감히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길은 교우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발현하는 데 있다. ■

새문안교회와 사랑의 선교(II)

소중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증언하고 봉사하는 교회



노 정 현 장로
(새문안교회 원로장로)

1. 머리말

지난 겨울(2004년 1월)에 원일한(Horace G. Underwood) 장로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오는 가을에는 원일한 장로의 아들, 초대선교사의 4대 손(孫)인 원한광(Horace H. Underwood) 박사과 그 가족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된다.

이로써 4대에 걸쳐 약 120년 간 언더우드일가의 한국선교의 현존(現存)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초대선교사의 4대손인 호리스는 그의 이한(離韓)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서 언더우드일가의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어이 한국의 사랑하는 친구와 직장을 정리하고 떠난다. 그는 이미 연세대학교수직과 한미교육위원회 단장직을 사퇴하고 10년만의 폭서를 무릅쓰고 전국명소를 찾아 나섰다. 그는 아마 그가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풍경을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기 위함인 것 같다.

필자는 주제에서 뜻하는 사랑은 타자(他者) 본위의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것이 곧 아가페(agape) 사랑이라고 본다. 선교는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봉사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2. 언더우드와 새문안 사랑의 선교 첫 열매

— 김규식 고아 이야기 —

미(美)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26세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미지의 땅 한국 인천항에

도착한 때는 1885년 4월이었다. 그는 다음해인 1886년에 한 명의 고아를 중심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 고아원을 설립했다. 고아원은 시작한 지 2개월이 못되어 고아가 1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김규식(金奎植)은 이 고아 중의 한 명이었다.

김규식은 남달리 총명하고 영어를 잘 하여 1897년에 미국 로녹대학(Roanok College)으로 유학을 떠나 1903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이듬해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귀국후에는 언더우드가 앞서 믿은 서상륜을 비롯한 14명의 한인과 더불어 세운 새문안교회(1887년) 장로, 서울노회 서기, 총회 총대 등 언더우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적극 협력하였다. 이처럼 김규식 장로는 새문안교회의 담임목사이기도 한 언더우드를 교회 안팎에서 혼신을 다하여 보좌를 했기에, 수많은 교회개척, 연합사업, 성서공회, YMCA, 그리고 연희전문대학 설립 등이 가능했다. 결국 김규식도 언더우드가 설립한 많은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연희전문대학 교수로 취임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1913년에 필생의 은인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어머니 품처럼 감싸 안아주던 새문안교회를 떠나야 했다. 김규식은 일제통치하의 한반도를 떠나 좀더 넓은 세계에서 빼앗긴 조국의 주권회복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고자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김규식은 그동안 익혀온 유창한 영어, 잘 연마된 학식, 초대선교사요, 한국 근대화의 길 개척에 선구자 역할을 한바 있는 언더우드로부터 체득한 능력 등을 배경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큰 뜻을 펼치는 천부의 기회가 전개된 것이다. 191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약소민족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1919년에

는 파리 평화회의에 임시정부의 전권대사로 참석하였다. 해방후 귀국하여 신탁통치와 남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고, 김구(金九)와 함께 남북협상을 시도하다 실패하였다. 그후 남한사회내의 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김구 전 임시정부주석은 암살당하고, 6·25의 전화 속에서 김규식 전(前) 부주석 또한 남북되었으니, 민족의 큰 별들이 떨어지고 말았다.

3. 베트남 근로자 사랑의 선교 사례

선교에는 사랑이 기초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몸소 모범을 보여 주셨고, 초대선교사 언더우드 또한 방금 소개한 바 있는 고아 김규식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 주셨으며, 해외유학을 보내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주신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과 선교는 이렇듯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 사랑의 선교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 새문안교회의 부단히 이어져온 전통이다.

1998년 새문안교회에 해외선교부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와서 한국근로자가 기피하는 3D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건강을 해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새문안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이·미용과 각종 진료를 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근로자를 위하여 법률상담과 구제에 힘써왔다. 이와 같은 일들이 끝나면, 5부예배에 참석한 다. 그후 교회는 그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다. 때로는 철따라 의류를 제공해주고 겨울에는 내의와 두꺼운 옷들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억울한 일 해결에 앞장서준다. 이와 같이 베트남근로자에게 사랑의 선교를 하는 것이 필자의 초대해외선교부장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7년 가까이 계속해오고 있다. 이일을 도와온 사람들 중 많은 남녀집사와 권사, 그리고 장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특히 계속 남모르는 수고를 해주는 심종구 집사에게 특별한 사의를 표하고 싶다. 심 집사는 베트남근로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새문안을 통해서 사랑의 선교에 선을 베푸는 일은 물론, 그들이 귀국해 새문안에서 받은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본국 베트남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평신도 선교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후 필자에게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이처럼 우리 새문안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베트남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 하면, 목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보수와 각종경비를 지원하면서 해외선교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후발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근로자의 대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구미 각국에서 그러했듯이 목사선교를 경비를 들여 파송하는 것을 본받아 선교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에 그들 스스로가 대거 취업차 몰려오는 것을 기회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며 거두는 효과는 전례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5. 맺는말

필자가 열거한 사랑의 선교는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 고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와 그를 양자로 삼고 교육을 마음에 두고 고아원을 설립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봉사정신, 그리고 우리 새문안교회가 외국의 근로자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선교정신과, 매주 이른아침에 3백여 명의 노숙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따뜻한 아침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선교들이다. 이와 같은 사랑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같이하기를 거듭 기원하는 바이다. 

그리스도 사랑의 선교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 새문안교회의 부단히 이어져온 전통이다. 사랑의 봉사정신 사랑의 선교정신 이와 같은 사랑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같이하시기를 기도한다.

선교의 불꽃이 살아있는 라피엣애비뉴교회에 다녀와서(1)

원영희 집사(본지 편집장)

지난 7월 25일(주일) 새문안교회와 기독교 복음 선교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라피엣 애비뉴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다. 마침 뉴욕대학교(NYU: New York University)에서 학회가 있어, 학교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기에 주일 예배를 라피엣



◇ 무성한 나무앞에 파묻힌 라피엣애비뉴교회 건물 정면.

회에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뉴욕 시 지도만으로는 교회가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하는 수없이 담임목사인 데이비드 다이슨(David Dyson) 목사님께 이메일을 띄워 찾아가는 길을 물었다.

다이슨 목사님은 NYU근처 서쪽 4번가에서 지하철 “F”선을 타고 브록클린쪽으로 오다가 “라피엣 애비뉴”(Lafayette Avenue) 역에서 내리라고 했다. 서쪽 옥스퍼드 가(South Oxford Street) 방향 출구로 나오면 같은 길 과 라피엣애비뉴 길 사이에 바로 교회가 보일 거라고 했다.


옥스퍼드 가는 주일이라 그런지 아주 한산했다. 마치 서울의 영등포처럼 약간은 어수선한 거리를 지나 교회건물이 있는 라피엣애비뉴로 접어들자, 마치 1백년의 세월이 그대로 서 있는 듯한 사진으로만 보던 라피엣 애비뉴교회가 보였다. 담쟁이덩굴과 높다란 가

로수로 짙은 잿빛 교회건물이 반쯤 가려져 있는데, 바로 옆 건물과 완전히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시원했다. 아침 9시 55분! 목사님이 7월 동안 주일 아침엔 10시 예배만 있다고 했기에 발걸음을 한껏 재촉했다. 교회 문 앞에 이르니, ‘라피엣 애비뉴 장로교회’(Lafayette Avenue Presbyterian Church)란 이름이 보였다. 새문안교회에 오셨을 때 된 지 7년이나 되었는데 목사님이 알아보실까? 약간은 걱정을 하며 문에 들어섰다. 예배당 로비에 웬 남자분이 열심히 주보를 정리하고 있기에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려 했다. 인기척에 그분이 휙 돌아서더니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데 바로 다이슨 목사님이셨다. 너무 반가워 인사를 나누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포근한 복숭아 색깔의 벽. 언젠가 《새문안》지 표지로 사용한 라피엣교회 성탄카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성전 모습 그대로였다. 입례송을 연주하는 웅장한 파이프오르간 음향이 성전에 가득했다. 모두 일어서서 한목소리로



◇ 다이슨목사와 함께한 필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All people that on earth do dwell)를 찬양하고 ‘신앙고백’을 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O God, we ask that you hear our prayer.)로 시작하는 신앙고백이었는데

우리의 사도신경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다시 찬송을 했는데 이번엔 잘 아는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Be thou my vision)이라서 용기를 내어 더 힘차게 찬양했다.(다음호에 계속) 

◇ 새문안교회 사랑의 선교 역사 현장 ◇

* 새문안교회 선교 역사는 1세기를 넘어선다. 오래된 부서의 활동 역사를 정리하며 새문안교회 사랑의 선교 역사현장을 찾아가 본다.<편집자 주>

예배부

전통예배와 현대예배의 조화를 위해 다양성과 통일성 살린 예배 준비

1887년9월27일 밤. 정동의 조그만 한옥 호롱불 아래서 14명이 모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새문안교회는 117년의 장구한 시간 속에서 일제의 압박과 해방, 6·25전쟁, 민주화투쟁...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 위에 최초로 세우신 어머니 교회답게 예배의식을 통해 균형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한길로 매진해 왔다. 개신교 전통예배를 드리는 새문안교회의 예배형식도 시대의 흐름과 늘어나는 교인 수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현재는 5부 예배를 드리는 대학·청년부는 현대예배의 새로운 예배형식(경배와 찬양)으로 변하고 있다. 예배부(부장 오장은 장로)의 발자취를 새문안교회 100년사를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1887년 9월27일(화). 언더우드 선교사주재로 한국 최초의 장로교 조직 교회로 탄생된 새문안교회(전통 한옥)는 14명이 모여 선교사 중심의 영어예배 대신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인이 50여 명으로 불어나자 한국어로 번역한 <여호와의 룡상압해>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 신앙고백을 결단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기도한 후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주요행사의 하나는 세례예식이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한국인 예배당에 모여 30분간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헌금으로 끝마쳤다.

1891년 2월. 마펫의 당회보고에 의하면 정규예배는 매 주일 오전 9시30분에 드리는 주일예배와 주일 오후 곧당골(지금의 미동)에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와 저녁예배 그리고 수요일의 기도회가 있었다.

1895년. 새 예배당이 건축되자, 별도의 지역(못골)에서는 여성교인들, 정동에서는 남성교인들에서 예배드리던 신자들이 모두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920년까지 예배당의 출입구를 좌우로 나누어 남 녀 신도의 출입구를 구분해 놓았고, 예배당 한 가운데 휘장을 쳐

남녀 신도의 자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다.

1896년.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보고에 따르면 정기집회는 주일 예배(3회), 주중 집회(5회)가 있었고, 새문안교회 주관 서울시내에서 열리는 전도집회(매주 4회)를 가졌다. 특별예배로는 부활절·성금요일·성신강림절·국왕탄신 기념 특별예배도 있었다.

1910년 5월 29일 낮 2시. 새 예배당(벽돌로 지음)을 지어 헌당하는 예배순서를 보면, 기원·성경본문 봉독·축사·봉헌사·교회열쇠와 문서전달·언더우드 목사 설교·서경조 목사 헌정기도·축가(김규식 작사, 영국성서공회의 버시 찬양)·축도(한석진 목사)로 대미를 장식했다. 당시에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예배가 인도되었다. 언더우드 목사와 차재명 교사가 주로 강단에 섰으나 장로와 조사, 외국선교사들까지도 주일 낮 설교를 맡았다.

1920년 말. 한국인 차재명 목사가 당회장 목사로 부임하고 다음 해 5월, 새문안예배당 면려회가 재조직되었다(처음 조직은 1913년경. 1919년 2월 7회 모임. 이후 1921년 4월까지. 3·1운동으로 인하여 면려회 모임이 중지되었다). 재조직된 청년 면려회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청년의 신앙간증 다양한 봉사활동을 발표했고, **1932년부터는 최초로 교회주보를 제작, 발간**하였다.

◇ 후보내용 : 주일예배순서 오전 11 시

사회: 차재명 목사

- 좌석 정돈.
- 주악- 교우일동 목도.
- 찬송 32장 - 교우 일동 기립.
- 기도- 손순명 장로.
- 성경 랑독- 시편 1편- 손순명 장로.
- 찬송- 본교회 찬양대.
- 강도- 강운림 목사.
- 기도-차재명 목사.
- 연보기도- 리용석 장로.



◇ 새문안교회의 예배형식은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어 다양성과 통일성을 살리고 있다.

- 광고 · 찬송 3장 - 교우 일동.
- 축도(목상)
- 폐회

1921년 6월 이후, 새문안 교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는 1931년 8월에 새문안 관현악대로 확장되어 예배시간 반주와 특별찬송 순서를 맡아 한층 부드럽고 아름다워 성령충만한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931년~1944년은 시련과 어둠의 시대이었다.

1945년 해방 직후, 당회장 김영주 목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회연합을 추진, 새문안의 연합정신과 청년성이 되살아났다. 1950년 6·25전란의 혼돈 중에서도 그 해 8월 중순까지 새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1953년 10월, 첫 주일은 교회복구 기념예배를 드렸다. 전쟁의 충격과 참화(慘禍)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 모임을 체계적으로 세웠다. 매월 첫째 주일 저녁 - 청년부 헌신예배, 셋째주일저녁 - 부인회 헌신예배, 넷째주일 저녁 - 중등부 헌신예배로 예배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1957년 9월 27일 오후 2시, 새문안교회 7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예배 순서를 보면,

- 기념식사
- 축가(독창)
- 교회약사 낭독
- 특별기념 설교
- 언더우드 목사 후손들에게 기념품 증정
-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3대에 걸쳐 목회자를 배출한 가문의 목사 초청 감사장 수여
- 35년 간 새문안교회를 섬기며 봉사한 교인들 표창 기념품 증정.

- 광고
 - 총회장 목사의 축도
- 이 날 저녁예배는 성가대 주최로 기념음악 예배로 드려졌고, 70년 기념행사는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어 언더우드 학술강좌로 발전 오늘 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63년 9월, 주일예배.

- 1부 : 오전 10시
- 2부 : 오전 11시15분 두 번 드렸다.

1972년부터는 3부 예배를 드렸다.

- 1부 : 오전 9시~9시 50분. 중·고등학생 중심 예배
- 2부 : 오전 10시~11시. 대학생·청년중심 예배
- 3부 : 오전 11시 10분~12시 10분. 장년 예배

1973년 11월 27일 밤, 교회마당에서 시국비판 횃불 시위 사건이 있었고, 1973년 12월 18일, 교회청년연합회 결성으로 반정부시위 사건이 있자 교회는 정치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교분리(政教分離) 원칙을 세워 1976년 6월 당회에서 대학부 활동을 일시 중지시키고 예배와 성경공부 외의 모든 대학생회 활동을 정지시켰다. 10.26사태 이후 대학생 활동은 재개되었다.

1981년 11월 8일, 김동익 목사 부임. 출석교인 수가 3,000명 선을 넘자, 예배 공간부족으로 9월 첫 주일부터 3부 예배를 4부 예배로 드리고, 4부 예배를 특별히 ‘청년·대학생 선교를 위한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다.

- 1부 : 오전 8시
- 2부 : 오전 10시
- 3부 : 오전 11시 30분
- 4부 : 오후 2시 30분. 특히 4부 예배(청년·대학생 예배)는 그 순서와 진행이 일반 예배 때와는 차별화된 말씀이 선포되었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서 주일 예배에 앞서 오후 1~2시10분까지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을 위한 성경공부 시간도 진행되었다.

1984년부터 직장인을 위한 ‘목요 정오 예배’라는 ‘주중 예배’가 신설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새문안교회의 위치가 도심이라는 점에 착안한 선교 차원 전략).

1987년(100주년)에는 교인 수가 무려 6,000명선을 넘어서었다(1982년에 교인 수 4,200명선). 그 해 2월부터 주일예배가 5부제로 늘어났고 예배를 돕는 찬양대 명칭도 새로 위졌다.

- 1부 : 오전 7시:30분
- (하나성가대. 하나·제일 : 하나가 되자는 뜻).

2부 : 오전 9시 30분

(새로핍성가대. 새로 피어남 : 천사의 뜻).

3부 : 오전 11시 30분

(예본성가대 : 예수님을 본받자는 뜻).

4부 : 오후 1시 30분

(새온성가대 : 새문안의 '새'자와 100이라는 순수 우리말 '온'을 따서 지음. 관현악부 반주).

5부 : 오후 3시

(한기림성가대 : 하나님을 한 소리로 기린다는 뜻. 경배와 찬양, 청년·대학생 예배).

찬양대의 활동은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

1987년 9월27일(주일) 100주년 기념예배 순서

사회 : 당회장 김동익 목사

- 전주와 기원.
- 서정환 장로 지난 100년간 새문안 역사를 회고하며 감사감격 기도.
- 성가 (다 감사드리세 E. Titcomb).
- 설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경직 목사.
- 100주년 기념사업 보고: 노정현 장로
- 축사: 제임스 릴리 주한미국대사.
- 교회 창립자 가족 소개: 당회장.
- 광고 및 인사: 이상원 장로.
- ‘새문안 찬양’.
- 축도: 허일찬 목사(서울노회장)

1991년. 5부 예배후 베트남인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림(유요한 목사).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멀티미디어의 문화·영상매체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00년 9월 27일 새문안교회 제6대 담임목사로 위임된 이수영 목사는 청년·대학부의 양적, 질적 쇠퇴를 감지하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새 비전을 내세웠다. 관심과 기도로 새문안교회 청년사역 부흥과 대학·청년부원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끊임없는 기도와 지도·연찬을 해온 청년부를 맡은 목사님과 교육부장·각지도위원들은 기존의 찬양 예배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C.C.M 찬양과의 조화를 이루는 예배를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5부 ‘열린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5부 **경배와 찬양예배**는 시각과 감각을 강조하는 “보는예배”이다. 복잡도 자유롭고 기존의 성가대는 찬양팀으로 바뀌고 지휘자는 찬양과 경배의 인도자로, 오르간과 피아노 등은 기타·드럼·키보드로 바뀌어 경쾌하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OHP·멀티비전을 통해 복음찬송을 반복해서 부른다. 자칫 인간의 감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생명력과 역동성이 넘쳐나는 예배가 말씀사역의 부족과 전통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으나 새문안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 감격하여 드리는 신앙고백의 참된 ‘열린예배’로 승화된 힘찬 열기를 보게 된다. 어머니교회로서 전통예배와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로운 현대예배(경배와 찬양)로 한국교회의 본을 세워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헌신하며 봉헌하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파송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배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

<자료 정리 : 나행자 집사>

전도집회 · 부흥사경회 · 목요직장인예배를 준비하는 전도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전도부가 하는 일은 모든분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전도부의 기본적인 임무는 소망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처럼 말씀을 듣게 하고 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14명의 세례교인으로 출발한 새문안 교회는 창립 2년 만에 교인수가 100명에 달할 만큼 급성장을 보인다. 이것은 교회 초기 교인들의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인 전도의 결

과였다.

1890년부터 1893년까지 언더우드 목사는 지방순회 전도 사업과 연합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문안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초기에 헌신적인 활동을 했던 교인들과 전도인의 열성적인 전도의 결과였다. 이들은 합심하여 흠어진 교인들을 심방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회와 전도 사업을 위한 헌금에 열심을 보이는 등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이다.

언더우드 목사는 제중원 교사 및 고아원 운영을 통한 교육 사업도 했다. 1893년 고아원의 성격을 탈피하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예수교 학당' 또는 '구세학당'으로 불렸다. 이곳 졸업생으로 송순명 장로와 역사상 빛나는 안창호와 김규식 장로가 있다. 1897년 교육전담가가 부족하고 복음 전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새문안교회 교인들은 학교 폐쇄결정과 관계없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여 1898년부터 교회 안에서 주간 학교를 계속 운영하였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전도하면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회 초기부터 전도 활동은 활발하였다.



◇2004년도에 헌신하고 있는 전도부(부장 이계희 장로) 부원들.

1955년에 친교부, 경조부, 구제부, 수거부가 56년에는 봉사부, 서무부, 재정부에 이어, 교인출석총수 1,320명이요 제직원 총수 100명인 1963년 전도부가 교육부와 함께 활동을 했다. 전도부장은 김대보 장로가 맡았다. 7년간 부흥회등 각종 집회로 역할을 하다가 1970년 더 넓게 봉사 해야겠다는 뜻에서 선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1대 선교



◇ 1970년대 버스 안내양을 위한 전도활동 모습

부장은 방순원 장로였으며 12년간 일 하는 중 할일은 많아지고 출석교인수도 4,000명을 넘어 교회가 방만해 지면서 1982년 다시 전도부(부장 석선진 장로)와 선교부(부장 방순원 장로)로 분리되었다.

전도부의 역할은 전도정신 배양과 전도 요원 훈련, 전도 집회 및 부흥사경회 주관, 특별 집회 운영, 구역 조직 및 활동지원, 권찰선발 및 육성지원, 심방 활동 지원, 신입 전입, 안내 및 환영, 새신자 육성 등 이상 8가지를 중점적으로 일해 왔다.

그후 부서별로 나뉘어서

- ① 심방팀-교적부 정리, 교인관리, 교구활동→심방부 (1991년)
- ② 교육팀- 기독교 기초 교리반 개설
새교우 교실 및 새신자 교실 개설.
새교우상담 및심방→새교우부(2002년)
- ③ 전도팀-새문안 쉼터(5호선 광화문역)운영→자원봉사부 쉼터봉사팀 (2003년)

노방전도, 전도책자 제작

- ④ 행사팀-수양관 화요 기도회(월,2,4째 화요일)
 금요일밤 기도회
 부흥사경회
 8.15 광복절 산상기도회
 목요직장인 예배- 매주 목요일 12:10~4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로서 1970년대 이용인(理容人)전도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요즈음 인원은 매주 300~350명 정도가 모인다. 목요직장예배는 2002년 까지 선

교부, 국내선교부에 속했다가 2003년부터 전도부로 넘어 오게 되었다.

1980년대 초는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한 후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었다.

전체 교인수를 통계로 보면 1977년 2,400명 이던 것이 1987년에는 8,400명으로 10년간 3.5배의 증가를 보였다

시대가 암울하고 암담한 생활이 계속되면 인간은 다른 통로를 찾게 되며 그 방법의 하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전도의 결실이 나타나곤 한다. 이때 교회가 방만해 지면서 전도부 교육팀에서 하던 일을 심방부에서 나누어 맡게 되었다.☞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는 심방부

전도부 심방팀 에서 하던 일은 1991년부터 심방부(첫해 부장 오장은 장로)로 이관되었다. 심방부에서는 매일 교회 출석인원수를 계수하는데 출석교인수는 2004년 6월13일 현재 4,753명이고 전체 교인수가 2004년6월말 현재 12,562명이다

심방부는 우리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이며 특히 가난하고 궁핍하며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를 통하여 영육간에 더욱 큰 힘이 되도록 힘쓰는 일이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다. 목회자와 함께 구역장 권찰들이 목회 차원에서의 심방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목회자와 구역장 권찰 그리고 뜻 있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궁핍할 때와 환란을 당했을 때 그 가정이나 혹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친히 심방하고 위로할 경우에 받는 감동과 은혜는 매우 크다.

한국교회는 각 구역별로 심방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있는 심방은 관례적이고 상례적인 것이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두 번 둘째와 넷째 금요일에 권찰회로 모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권찰회가 성경 공부에만 그치지 말고 심방에 대한 성서의 본뜻을 철저히 배워야 되겠다.

② 새문안교회는 10개 교구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교구 안에 여러 개의 구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구장목사와 각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로 구성되어 있다.



◇ 기도와 찬양으로 심방을 준비하는 심방부 부원들.

③ 구역예배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각 구역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 앞으로는 이웃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④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구역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힘써야 되겠다.

2004년 교회의 표어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성도들을 성심껏 섬기는 심방부가 되기 위해 오늘도 심방부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새교우들의 편안·신속한 교회 적응을 위해 힘쓰는 새교우부

새교우부는 전도부 교육팀에서 2002년부터 독립하게 되어(첫째 부장 변우량 장로) 새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교우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교우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새교우 등록 절차와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매달 등록자는 50~80명이며 교육 수료자는 30~70명이다.

① 새교우들은 1~5부 예배 후 제3교육관 106호(교회 정문 옆)에 마련된 새교우실에 오셔서 등록할 수 있다.

② 새교우는 새교우 접견실에서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간단한 신앙 상담 후에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③ 새문안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후 5주 동안의 새교우 교육을 마쳐야 한다. 새교우 교육을 마친 새교우는 교회의 교적에 등록되어 교인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다.

④ 5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서 담당목사와 면담을 통해 교회 생활과 심방과 교구 편성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⑤ 새교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교구에 편성되어서 교구담당 목사와 구역장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 성경공부반과 남·녀 선교회 및 자치 기관에서 활동하게 된다.



◇ 새교우부 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⑥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교회학교 교사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하다.

⑦ 세례와 입교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⑧ 타교회 직분자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해야 본교회 직사로 임명되며(단, 이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 향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은 임직받은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친후에 본교회 '재직향존직'으로 선임된다. **☞** <정리 : 김기숙 권사>

어머니의 마음으로 친교·체육·환영·환송회를 주관하는 친교봉사부

“누구나 맡으면 할 수 있어요. 내 살림처럼 내 주방처럼만 하면 돼요. 우리 가족 먹인다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친교봉사부에서 봉사하려면 책임의식과 원만한 대인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간혹 맛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간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도 엄마의 마음으로 다 들어주고 받아 주어야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일해야 하죠.” 2003년 친교봉사부장 노은자

권사는 이어,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 가격에 맞추어 메뉴를 짜도 변동이 심해 애로가 많았고 예산안에서 주일 식단을 정성껏 짜도 전교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무척 힘들지만, 한 가정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한다.

교인 상호간 친교활동과 체육활동, 각종 환영 및 환송회를 주관하는 친교부는 1955년 이봉희 부장부터 제직회 부



◇ 1970년대 교우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현재 제2찬양대실). 그릇이 준비한 모습이 현재 주방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서장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며 봉사부는 교회 식당 관리 및 운영, 교회 결혼식 피로연 준비 및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1956년 오인명 부장부터 새문안교회 100년사에 기록되어 있다. 한때 ‘교우부’라는 이름으로 봉사했던 시절에는 별도의 식당 공간이 없어 교회 근처 사찰 집사 댁에서 음식을 해서 큰 솥이나 냄비에 담아 교회로 나르기도 했다. 1972년 교회 본당이 신축되면서 본관 1층 제일 안쪽을 부엌으로 이용하면서 결혼식 피로연 등 각종

음식을 준비했다. 이후 이곳은 권사실로 쓰이다가 제2찬양대실로 바뀌고 기계실과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던 지하에 친교실을 만들어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친교부와 봉사부의 주관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자, 교회는 2003년 친교봉사부로 통합시키면서 일관성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친교봉사부는 매주일 식사, 제직수련회, 경로대학, 목요직장예배, 결혼식 피로연, 대의 손님맞이, 각종 환영·환송회, 경로잔치, 개업·개원 축하 등 교회 여러 행사에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4년 친교봉사부장 현숙자 권사는 “무엇보다도 교회 친교봉사부를 가장 우선시 합니다. 주일은 아침 7시15분부터 7시40분까지 3백여명의 노숙자 식사를 시작으로 2천명 정도의 교인 식사를 준비하려면 가정은 잠시 두번째로 밀려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능력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부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모두 은혜를 받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소박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한다.

뒤에서 노동만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버리고 교인이면 누구나 한 번씩 꼭 봉사해 보라고 친교부장은 권면하고 있다. 친교봉사부의 헌신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취재 : 황윤선 집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큰 은혜를 나누는 경조부

원로 故 강신명 목사 당회장 무렵부터 경조부에서 봉사하셨던 오재순 권사는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헌신하셨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교회 제직부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던 시절이라 어려움이 많았죠. 상이 나면 연락도 오늘날처럼 잘 되지 않았고... 강신명 목사님과 이영신 사모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다녔는데 보조 역할부터 시작했지.”

어느 여선교사로부터 전수받으신 이영신 사모로부터 관보 만드는 법을 배운 오재순 권사는 김동익 목사님 관보까지 술하게 많은 관보를 만드셨다. 직접 시장에서 천을

떼다가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처음에는 사모님과 관보를 만들다가 차츰 권사님들(지금은 은퇴하신)과 함께했고 경조부가 보다 조직화되면서 5명 정도가 관보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보통 관보 1개를 만드는데 4~5 시간이 걸렸으며 교세가 크게 확장되기 전에는 모든 교인에게 관보를 제작해 주었다. 부탁하면 수의까지 직접 만들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교인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교역자나 향존직 중심의 교회장을 치를 때에만 관보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당시 관보 제작은 당시 타교회에서 부러워했던 새문안교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 본교회 경조부에서 사용하는 관보.

“새문안교회 경조부는 관보 만드는 일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전통입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구 중심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는데 반해 새문안 교회는 경조부가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도 새문안교회의 좋은 전통이지요.” 현재 경조부를 맡고 계시는 방충근 목사는 말씀하신다.

새문안교회 100년사에 따르면 경조부는, 1955년 오인명 부장을 시작으로 제직회 부장 명단이 기록되어있고 1957년 당시 교회 조직표에 재정부, 서무부, 사교부, 봉사부, 경조부 5개부서가 기재되어 있지만 누락된 사료가 많아 정확히 언제부터 경조부 활동이 시작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새문안교회 100년사에 “이 밖에 새문안교회같이 오래된 교회의 경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행사의 하나가 경조사(慶弔事) 문제이다. 교회가 오래되고 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경조사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일을 전담할 부서가 교회 안에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경조부의 설치였다. 교인에 대한 상사(喪事)는 물론 회갑 또는 혼례 등을 당할 때 경조부가 전담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1920년 또는 1921년으로 추정)라는 기록이나 교회 사무 분담 부원 명단(1943년, 표에 경조부 기록), 경조부의 역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이전부터 경조부가 존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교회역사를 많이 아시는 서원석 장로 역시 “1955년 12월 1일 강신명 목사께서 부임 이후, 상을 당했을 때 남자

는 강목사님이, 여자는 사모님이 직접 시신을 염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유족과 교회가 돈독한 정을 나누기도 하고 유족들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새문안교회에 출석하는 계기가 되어 그 당시 교회 선교의 일익을 크게 담당하였지요, 유족이 적은 상가(喪家)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가(喪家)는 경조부가 장례의 모든 절차는 물론, 발인·입관·장례 예배를 함께 드려 유족을 위로하고 새문안동산을 장지로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되었지요.”라고 지금도 계속되는 경조부의 공로를 높이 셧다.

혼례에서는 교인은 물론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식장을 제공했고 원할 경우 예복과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합동 결혼식도 치러 주었다.

새문안 교회에서 년평균 실시된 경조사를 살펴보면 7,80년대 결혼 70여건, 장례 40여건, 2001년 결혼 83여건, 장례 103여건, 2003 결혼 42여건, 장례 100여건 으로 점차 장례가 증가하여 단일부서로서는 감당하기에 벅찬 규모가 되자 2002년 정책당회에 제안, 2003년부터 장례 업무와 교회장 업무를 경조1부(1~5교구)와 경조2부(6~10교구)로 분할하고 경조1부는 혼인예식과 새문안동산 관리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1966년 새문안 동산을 매입한 이래, 새문안동산을 관리하고 확장한 것도 경조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63년 부지를 처음 매입할 당시 가족묘지분양지원자가 없어 한때 매각까지 했다가 다시 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묘지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선견지명이다. 이제 또다시 경조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

“고양시로부터 납골당 허가가 나면 금년 중에 납골당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장 문화가 확산되는 시대조류에 맞춰 새문안 동산에도 납골당이 설립되면 장례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새문안 동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조1부장 김호용 장로님은 이렇게 경조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계기를 만드는 데 떠한 경조부의 보람이자 은혜라는 믿음으로, 궂은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경조부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문서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해 뛰는 **홍보출판부**

《새문안》지, 『교회요람』, 『주보』, 『설교집』 등 출판

올해로 교회 창립 117주년을 맞이하는 새문안교회는 처음 창립되던 때로부터 출판과 기록들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1886년 겨울 마가복음이 번역 · 출판 되었고, 1889년 10월, 언더우드목사가 한영사전과 한영문법을 출판하였고, 1893년 10월 언더우드판 첫 찬송가를 출판했다. 1932년 10월30일 면려청년회가 주관이 되어 첫 주보가 발간되었다.

그 외 중요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1904년 정식 당회가 조직되어 당회서기에 송순명장로가 선출되어 당회록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1910~1940년 사이의 당회록이 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다. 새문안의 문헌집으로는 『새문안 교우 문답책』 으로 1907~1932년 까지의 기록으로 새문안교회의 학습세례 및 입교자의 신상명세서로서 개개인의 직업과 주소 · 연령 · 학력 등이 소장히 기록되어 있다.

『새문안 레배당 교인 성명부』는 1887~1930년대의 입교인들의 교적을 개인별로 정리해 기록해 놓은 책이다. 1914년 제직회가 정식 조직이 되고, 1914~1940년 간의 제직회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 외에 오늘의 공동의회록에 해당하는 교회록인 『경성 새문안 교회록』이 1917~1940년 사이 것이 있고, 「새문안 면려회 회의록」(1919~1921)과 새문안 『교회 일지』(1914) 등이 있다.

그 후 『새문안 70년사』는 70년사 편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신과 대학의 한태동박사가 집필하였고, 『새문안 85년사』는 연세대 신과 대학의 민경배교수가 집필하였다. 「새문안 100년사」가 그 후에 출판되었지만 이모든 출판물들은 출판부가 따로 없었던 당시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 《새문안》 제 1호가 발간되었지만, 그 후속 책은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중단되었던 것 같다.

『새문안 100년사』 부록 622쪽을 보면 제직회 부서로 ‘홍보부’가 시작된 것은 1979년이며 첫 번째 부장으로 (고) 어윤배 장로가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해 (고)박기혁 장로가 홍보부장이 되면서, 1981년 9월 창립 94주년을 기념하여 《새문안》지가 22년 만에 복간되었다. 1960년 창간호를 낸 후 사라진 《새문안》지가 새문안



◇ 취재하러 교회 여러 곳을 뛰어다니다가 편집실에 모인 홍보출판부(부장 간영석 장로) 부원들.

공동체의 언론매체로서의 사명을 띠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제직회 홍보부 주관으로 발간한 새문안지의 첫 편집위원장을 맡은 홍보부장 박기혁장로는 그 취지를 “오늘 우리가 《새문안》지를 다시 세상에 내놓는 목적은, 첫째 새문안교회의 전통과 정신을 교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높이는 데 있으며, 둘째 한국의 어머니교회로서 우리의 선교사명을 다짐하면서 세계를 향한 폭넓은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며, 셋째로 교회내의 상호 이해와 친교를 위한 의견교환과 소식전달 등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새문안》지를 복간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은 새문안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과거 1세기 동안 걸어진 새문안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첫 호에서 김동익 목사의 “100주년을 바라보는 새문안”이라는 글과 강신명 원로 목사의 “새문안 100년을 돌이켜 본다”는 글은 그 의도를 잘 말 해 주고 있다.

1981년 《새문안》지 1~3호가 발간되었고, 그 후 두 달씩 합본을 하거나 건너뛰어 1년에 4~6번 정도 발간이 되다가 1996년 3월호부터 현재까지 7·8월 합본 외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출간이 되고 있다.

그 이전에 이미 1970년 출판부가 있었고(『100년사』 624면) 부장에는 오인명장로, 71년 김대보 장로, 73년 노정현장로의 세분 기록이 남아 있을 뿐 더 이상의 출판부나 부장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출판부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홍보부는 다시 출판의 업무까지 하게 되어 2003년 “홍보출판부”로 명칭을 바꾸어 업무로는 ① 새문안지 월

간 발행 ② 교회 요람 발간 ③ 주보표지 및 인쇄 ④ 설교집, 홍보 책자인 브로슈어(brochure : 한글판 · 영문판) 발행 ⑤ 대외홍보 ⑥ 기타(문예창작대회, 캘린더,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등의 일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통부와 함께 전자잡지 《e 새문안》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㉑

<취재/정리 : 김창란 권사>

인터넷 선교와 교회 행정 전산화에 힘쓰는 정보통신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교회도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1998년 3월 당회에서는 미래시대를 대비하여 교회교육·선교·조직의 정보화를 위한 연구팀을 ‘기독교 2000년 기념사업회’ 안에 구성하여 연구하도록 허락한 후 김호용 장로의 지도 하에 팀이 구성되고 운영되었다. 동년 4월 당회는 ‘정보화 연구팀(Task Team)’을 민경찬 집사(팀장) 외 6인의 팀원과 이성직 목사(지도목사)로 구성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후 전략기획 워크샵 등 10차례의 연구 모임을 거쳐 행정·교육·선교·시스템에 관한 1단계 4개년 계획으로 새문안정보계획안(1998~2001)을 마련하였다. 동년 10월 당회에서는 1999년에 제직부서로 ‘정보통신부’를 두기로 하고 부장 최규완 장로, 지도목사 김대동 목사로 임명하여 정보화가 매우 빠르게 추진되었다.

정보통신부의 목표는 ① 21세기 한국교계를 선도하는 새문안 교회, ② 선교 교육 행정에 관한 새로운 영역확대와 체제 구축, ③ 청소년 세대를 포용하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가치의 창출 및 정착으로 삼고 있다.

우리 교회는 1992년 10월 프로그램 ‘하나’를 이용하여 교적부를 전산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화준비가 시작되었

다. 그러나 제직부서로 출발한 해에 <교적관리를 위한 디모테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4월 당회에서 도메인 ‘saemoonan.org’, ‘saemoonan.or.kr’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다. 당해 9월 창립기념주일에 새문안홈페이지 시연회, 컴퓨터의 시스템 관리, 통신전용선 확보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며, 2000년 6월에는 2단계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교육행정의 전산화, 컴퓨터 교육, 인터넷 선교, 콘텐츠개발 등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교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부서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교의 비전 제시, 외국인을 위한 동영상 자료 제공, 교회 내의 소그룹 활동과 평신도 훈련, 교회 내 부서들의 사이트 관리 및 지원, 멀티미디어 교재개발, 성화 영화관 운영, 교회 사무제도 개선, 온라인 문서 발급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제직부서 중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그동안 변하는 미래를 향해 많은 프로그램들 도입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곧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홍보출판부가 기획하는 《e-새문안》지 발간도 돕고 있다. ㉒

<취재/정리 : 김창란 권사>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다 하는 남선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 예루살렘 마당



◇ 새문안교회 면려회 회록

1887년 9월 27일 14명으로 시작한 새문안교회는 1899년에는 530명의 성인 교인에 이르는 발전 속에 1898년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서울시내 두 곳에서 선교사업을 벌이는 한편 매주 한 차례씩 언더우드 목사 사택에서 주일학교 교사, 구역 인도자 교회 임원들이 모여 교회일을 협의하였다. 1913년에 면려회로 발전되어 제직회

마다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았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있던 때인 1919년 3월 29일에 열린 제128회 당회에서 “당분간 제직회, 면려회, 제소회집을 연기할” 것을 결의한다. 이 결정이 일반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수감되거나 상해를 입어 교인들의 회집이 불가능해진데서 비롯된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유대의 온 땅

첫 한국인 당회장으로 차재명 목사가 부임한 후 교회 행정의 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1921년 4월 3일 주일저녁 예배당에서 「면려부흥발기회」가 임시 회장 차재명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이 때 회원수는 24명에 달하였다. 그해 5월 모임에서 ‘신문내 면려회 규칙’을 제정하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1924년 6월 회원의 연령을 국한시켜 「청년 면려회」를

독립시켰으며 그해 12월에 「새문안 학생 면려회」가 분리되었다. 청년 면려회의 주목할 활동으로 헌신예배와 봉사활동 ‘권 경성 기독교청년 탁구대회’와 ‘현상동화대회’를 주최하여 교회연합행사에 힘썼고 1932년 최초의 교회 주



◇ 본교회 최초의 신문내(새문안)교회 주보.

보를 제작·발간하였다. 1932년 청년 면려회 음악부주최로 교회내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경성교회연합 음악대회” 및 “기독교 청년 연합 음악회”를 주최할 계획을 세웠으나 세계적인 공황 때문에 다음해 봄으로 연기되었다.

일제는 반일의식이 강한 청년층 조직, 즉 기독교 청년조직체인 장로교회 소속 서울 청년 면려회의 해산과 함께 1938년 5월 새문안 청년 면려회도 강제 해체시켰다.

■ 먼 사마리아의 땅

1945년 해방을 맞아 고응진, 정충희 등 청년집사들을 중심으로 ‘새문안 청년 면려회’가 재결성되었다. 이들은 농

촌활동 및 의료선교를 통한 사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당시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감인 이병희 집사와 의대생인 송순옥, 송요섭 등의 활발한 무의촌 봉사 활동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1949년 7월 7일 서울기독교청년면려회재건총회를 본교회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6·25 전쟁을 겪고 부산 ‘피난교회’에서 서울로 환도한 후 매일 첫째 주일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1954년 12월 26일에 ‘새문안 면려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다시 발족하였다.

강신명 목사의 부임 후 1957년 9월 교회 70주년 기념행사에 연이어 10월 3일에 ‘전 서울시내 교회 대항 배구대회와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장년면려연합회>의 사무실을 본교회 내에 설치하였고 서울 시내 교회들의 청년회 회장단을 초치하여 토론회와 친목회를 개최하는 등 교회 연합 운동의 ‘중심체’가 되었다. 1957년 고등부와 중등부

를 분리시키고 ‘청장년 면려회’로 바뀌었다. 그 후 1969년에 평신도회로, 1977년에 남전도회로 바뀌었다가 1979년 ‘남선교회’로 바뀌었다. 1960년대 남선교회가 독자적으로 지원한 교회 및 단체수가 24개처나 되었다. 1973년부터는 선교담당 부목사 제도가 생겨나면서 선교 봉사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 땅끝까지

1983년 이후 남선교회는 연령에 따라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 제3남선교회로 분립되어 각각의 특성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선교활동을 추진하였다. 수요조조신학강좌, 자립교회 선교비 지원 의료선교의 적극참여, 해외선교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협력 등으로 복음의 증인답게 전진하며 나아갈 것이다. **☞**

<취재/정리 : 박준익 안수집사>

여명기에서부터 선교·봉사·교육의 정신 믿음으로 이어온 여전도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선포된 후에 여성들은 복음으로 새 세상을 발견하였다. 여성들은 모이는 데 힘썼고, 열심히 배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였다.

서울에서의 여성선교는 1886년에 내한한 여의사 엘러즈(Miss A. J. Ellers)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엘러즈 선교사는 왕실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 교육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의 선교장은 새문안교회였으며,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우며 선교에 임하였다. 새문안교회는 조직교회로 발전하면서 차츰 성장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1907~1908년 당시의 남녀 세례교인 통계표를 보면, 여신도들의 세례문답이나 원입 학습문답에서 합격한 숫자가 남자 교인보다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여성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년 간에 문답을 받았던 전체 숫자는 2백 56명이며, 그 중 남자 교인은 1백 17명, 여자 교인은 1백 39명이었다. 합격 숫자는 남자 1백 8명, 여자는 1백 26명이었다(새문안 100년사 139쪽).

이렇게 기독교를 통해 차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지난날의 봉건적 사고방식의 탈피의 계기가 되었다.

초기 새문안교회 부인전도회 창설과 활동

새문안교회 부인전도회는 언제 조직되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여전도회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선신, 이마리아, 김신도 권사의 증언에 의하면, 1922년에 부인전도회가 창립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숫자는 비록 적었지만, 이들은 여성운동에 앞장섰으며, 이 운동으로 많은 여신도들이 의식화되고,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역사의식은 더욱 뚜렷하게 성장되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 승동교회에서 매년 농한기에 여성을 위한 사경회가 열렸다. 이 사경회에는 새문안교회 여성들도 많이 참석하여 성경을 배우고 여성들이 할 일을 찾아 문맹을 퇴치하는 한글 공부에도 많은 힘을 썼다. 이때 여자전도사(당시의 호칭은 전도부인) 리노이스, 남웅진 등의 활동으로 부인회는 더욱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리노이스 전도사는 1916년부터 1931년까지 만15년을 새문안교회에 봉직한 여전도사이다.

1930년대 전도운동과 부인전도회 활동

193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새문안교회는 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을 돕는 구제사업과 전도 운동에 열정적이었으며, 이 일이 주로 부인전도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부인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교회 내의 전도활동을 살펴보면, 1930년 10월 당회는 추계심방 기간을 맞이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방과 전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주간 사경반’을 개학하였다. 이 사경반을 이끌어 간 분들은 리노이스 전도사를 비롯, 남궁진 여전도사, 그리고 송순명 장로의 부인인 송명애집사와 차재명목사의 부인 차활란 사모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새문안 부인전도회를 섬기고 이끈 중추적인 인물들이었다(새문안 100년사 254면).

그 이외에도 당시의 당회록에 의하면, 여신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도부인의 활동은 대단했으며, 주일마다 짝을 지어 서울 근교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다.

또한 새문안 부인전도회는 교회내 조직체 중 가장 막강한 조직력과 독자적인 활동 기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1927년말 당시 새문안 교회 재적교인 8백 50명 중 장년부가 1



◇ 새문안교회 여전도 특집 야외예배(1939년)

백 70명이었는데, 이 중 부인회원이 1백명에 달했으며, 특히 당시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천 2백원(당시 교회 1년 예산은 1천 4백원)에 달하는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새문안 100년사 257면).

1920~1930년대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활발히 전개했던 절제운동과 금주운동에 새문안부인회도 적극 참여하였다. 금주운동은 사회정화 운동의 차원을 넘어 항일(抗日)민족운동이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경제권이 없던 때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마다 얼마의 양식을 따로 떼어 성미를 하였다. 이 성미 모으기 운동에도 열심이었다. 1920년 3·1운동이 있던 직후 교회가 타격을 받아 교역자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인전도회원들은 교역자를 돕는 방법으로 성미를 거출하였다. 또한 전도 부인의 생활비도 담당하였다.

또한 여성지도자의 양성과 여성교육을 위해 신학교와 여러 교육기관을 세우는 기금 모금에도 크게 힘을 썼다.

1928년에 전국연합회가 창립된 후 1929년 제2회 총회가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그때 전적으로 결의하여 중국 선교사를 보내게 되어 김순호 선교사를 파견케 되었다. 이런 선교비는 각 연합회가 모금하였는데, 새문안 부인전도회도 세계를 향한 복음에 열정을 쏟았다.

1941~1944년대의 상황

1941년 13회 부인전도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경찰은 이들이 여자이고 상회기관인 총회에서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사 참배에 응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대회

에 참석했던 회원들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 참배는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결국 부인전도회 연합회는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걸었다. 한편 새문안교회 부인전도회도 활동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더욱이 제4대 회장(1939~1944년)으로 선임되었던 김성무는 이미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신사참배 반대로 전국연합회와 경성연합회가 해산되어 새문안교회 부인전도회도 밖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내실을 기하는 기도운동에 힘쓰다가 결국 1944년 말에 해산되고 말았다.

해방과 6·25 혼란기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는 망하고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도회는 개 교회마다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새문안교회도 역시 여전도회가 재조직되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도 새문안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의 모임으로 재건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민족의 골육상쟁인 6·25 발발과 서울한도의 와중에 여전도회의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또 다시 1953년 기장과 예장이 분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생겼다. 이때 여성들은 분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화합을 바라는 기도를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1960년대 이후

여전도회 기록은, 1964년 1월 정기 월례회부터 회의록이 있어서 여전도회 활동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여전도회는 매월 둘째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난 후 모였고, 각 부의 사업보고를 받고 새 안건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세한 기록이 있다.

시대가 어려운 때라 나라와 민족과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구속된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해 철야하며 합심으로 기도한 그 시대의 아픔과 고뇌가 현재 자세히 기록으로 남아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울 때였지만, 개척교회 지원이나 군 선교지원 등 선교사업은 중단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원한 교회와 기관은 다 열거할 수 없이 많다.

회원 확장으로 여전도회의 분리, 조직

매년 회원들의 증가로 1979년 초 여전도회를 25세부터 45세까지를 청년 여전도회로, 45세 이상을 장년 여전도회로 분리하였고, 다시 김동익 목사의 취임 후 여전도회의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위해 1982년 후반에 1·2·3·4 여전도회로 분리, 조직하였다.

1994년에 70대 이상으로 한나여전도회가 분리되고, 1996년 말에는 또다시 5년 차로 1~8여전도회로 재편되었다. 2002년에는 7·8여전도회를 다시 합병하였으며 직장여전도회를 신설하였다.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과 활동

협의회는 여전도회 행정부서이다. 4개의 여전도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새문안 여전도회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가 조직되면서 새문안 여성사(女性史)를 기획, 이를 위한 기금 조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협의회가 발족된지 얼마 안 되어 1983년 4월에 새문안교회 여전도회 100주년사(史) 편찬을 위하여 회장(이수한 권사)과 부회장(송순옥 권사)이 중심이 되어 여성사 자료 수집을하기로 결의를 했다. 1983년 10월 협의회에서는 또 다시 새문안교회 여전도회사 편찬을 위하여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회원의 구성은 협의회 8명 및 회원 3명으로 모두 11명이 선임되었다.

1987년 협의회는 새문안교회 100주년을 맞아 연1회 여성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의, 동년 12월 8일에 1회 세미나를 개최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기독교 선교 2세기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여전도회의 활동이 새롭게 요청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모두 9개 여전도회가 여전도회의 목적과 사명을 좇아 헌신·봉사와 선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여전도회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발족된 단체이며 우리 새문안교회 여전도회도 8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선교단체이다.

그간 민족의 수난과 역사에 동참한 산 증인으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사랑과 인내 가운데 이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향한 선교여성의 역할이 바로 우리 새문안교회 여전도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 : 박은숙 권사>

광복절 예배

8월15일 주일 예배는 광복주일로 지켰다. 이날 이수영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신26:16~19)”이란 주제말씀을 통해 “광복절을 다시 맞은 오늘 하나님을 인



◇ 광복절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수영 담임목사.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다짐하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남찬양대 광복절 찬양예배

8월 15일 주일 저녁찬양예배는 새남찬양대주관으로 유재현 안수집사(새남 대장)의 인도로 광복절 찬양예배로 드렸다. 이날 이정배 목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주



◇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등 3곡을 새남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다.

제말씀을 전했고, 새남찬양대가 특별찬양 <주께서 주의 백성을 지킨다>, <승전가>,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등 3곡을 찬양,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2004년도 광복절 산상기도회

전도부(부장 이계희 장로) 주관으로 8월 13일(금요일) 새문안수양관에서는 강사 권영복 목사(방주교회 담임)를 초빙, 광복절 산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8대의 버스로 교회를 출발, 수양관에서 오전 11시 이수영 담임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눅4:16~19)”이란 주제말씀을 강사 권영복 목사(서울 방주교회 담임)가 전했고, 계속해서 점심식사후 부흥집회2(오후 1시 45분~오후 3시) “성도의 중보기도(딤후2:1~7),” 부흥집회3(오후 4시 15분~ 오후 5시 30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25~34)” 등 3번의 집회를 통해 권영복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찬양은 리조이스찬양단, 권사찬양단, 5·6여전도회가 담당했다.

권찰회 개강

8월 7일(금요일) 오전 11시 권찰회가 개강했다. 이날 이청근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시37편 1~10)”이란 주제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예배후 각 교구별 모임을 갖고 하반기 구역활동 등을 논의했다.

필리핀 세부지역서 제13차 해외의료선교

의료선교부(부장 김경년 안수집사)는 9월 24일(금)~30일(목)까지 6박7일 간 필리핀 세부지역으로 해외의료선교를 떠난다. 성공적인 의료선교를 위해 단원들은 1~3차 준비모임을 갖고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매일밤 10시에 필리핀 의료선교를 위하여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최초로 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는 이번 선교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찬양팀도 구성하여 진료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의료선교 단원 명단(42명)

▲ 지도: 강연준 목사

▲ 의사(14명): 김경년 송순옥 문영목 최창희 안상천 김중관 심재윤 송인철 박수철 이영관 김경원 강충규



◇ 필리핀 해외의료선교팀의 의료선교부실에서 준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안휘용 김용석

- ▲ 약국(4명): 오중환 조영상 손기순 이희숙
- ▲ 간호사(4명): 신정심 김영남 조영숙 김은희
- ▲ 장비(1명): 김성철
- ▲ 미용(2명): 박승현 이말순
- ▲ 지원팀 (17명) : 이길자 남옥자 이은자 김옥화 최영애
최순환 조현주 허귀임 우삼제
유수희 김동배 황선희 유시정
최성연 신지혜 이인혜 정영희

한편 홍보출판부 《새문안》지에서는 정영희 집사를 이번 선교 여행에 취재 기자로 특과한다.

성인2부 특강

성인2부(부장 태원식 안수집사)는 8월 22일(주일) 오전 10시10분 제2교육관 101호에서 이광자 총장(서울여자대학교)을 강사로 초빙하여 여름특강을 마련했다. 이 총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는데, 많은 교우가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다.

여전도회협의회 선교바자회

여전도회협의회(회장 이은화 권사) 주관 선교바자회가 9월 17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본당의 예배 후 신관·친교실·마당에서 개최된다. 여전도회협의회는 이번 선교바자회를 위해 추석장을 준비해 왔는데, 회원 및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바자회 품목 : 건어물·각종김치·청국장·고추장·된장·간장·한과류·엑세서리·의류·화장품·빈대떡·과일·젓갈·송편·생활도자기·고춧가루·화장품·기타 등등
- (자세한 문의 ☎ 100-251-8622)

정통부 주일컴퓨터교육 수강생 모집

정보통신부(부장 유진규 안수집사)는 제4기 주일 컴퓨터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9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주간 갖는다.

- ▲오전반(11:10~12:40) : PC 및 인터넷교육
- ▲오후반(13:10~14:40)
- ▲접수 : 정보통신부 사무실(제3교육관 3층·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호스피스 4기생 모집

사회부(부장 여기락 장로)는 9월16(목)부터 11월18일(목)까지 호스피스 4기생을 모집한다.

- ▲교육비 : 7만원(3만원 사회부 지원)
 - ▲교육장소 : 정동제일감리교회(733-8141)
 - ▲신청 : 본교회 사회부(제3교육관 201호).
- 그 외의 자세한 문의는 교회사무처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733-8141).

교회관련 사료 찾아

새문안교회 교회사료관(관장 윤경로 장로)에서는 제1회 언더우드 학술강좌부터 40회까지의 각종 자료를 모으고 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교우들은 교회사료관으로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문의전화 : 02)).

교육3부 특별교육과정 2학기 개강

교육3부(부장 김상철 장로)는 특별교육과정 2학기를 개강한다.

- ▲시편연구반(9월 15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성직 목사)
- ▲기독교강요반(9월 1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김기홍 목사)
- ▲놀라운 삶(9월 5일<주일> 오후 3시·이청근 목사)

▲ 사랑의 수화교실(매주 12시 40분 · 이현주 권사)

새문안 상담전화 개설

상담부(부장 최규완 장로)는 지난 8월부터 새문안 상담 전화를 개설했다(상담전화 ☎ 738-0623).

- ▲ 상담일시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 상담분야 : 생활정보 · 신앙 · 인생 · 가정 · 교육 · 심리 등.

장학금 수여식

8월 29일(주일) 5부 예배 시간에 본교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 장학금 수혜자 명단

▲ 대학생

권장안 김남현 김선영 김중민 민혜홍 서해동 육근본 이범석 이수철 이승국 이충환 정신승 정혜진 조성우 추진희 홍성란 남효은 양승일 최지혜 김은숙 박주은 원하나 주새롬

▲ 지휘자/반주자

박부은 박시은 박효림 최주선 김수운

▲ 고등부학생

강동현 김수아 김창욱 남초아 박은강 안희전 유한샘 이성보 이한별 장태민 전진권 정혜운 조영희 정우성 이빛나 박정연 조하나 최지은

▲ 음영부독창자

강단옥 최병준 이해련 장연희 서영규 김두원 정하나 고기연 김건주 서정화 임금정 윤선화 홍승모 김복남

교육2부 두나미스 선교 마치고 귀국

교육2부(부장 노재영 장로) 청년·대학생 두나미스가 단기선교 여행을 무사히 돌아왔다. 이들은 네팔·러시아·베트남·일본 등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 체험의 시간을 가지는 등 일정을 무사히 마친 후 성숙한 모습으로 귀국했다.

2004년 2학기 교회음악과정 수강생 모집

새문안음악교육원(원장 김명엽 장로)에서는 2004년도 2학기 교회음악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 찬송가 반주반 : 9월9일(목) 오후 2시 개강

▲ 수업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 수강료 : 14만원(3개월 과정)

▲ 문의 : 새문안음악교육원 (☎ 723-4961)

2004년도 해외선교대회 개최

해외선교부(부장 이용실 장로)는 10월 10일(주일) 1부 예배부터 찬양예배까지 해외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선교사역 보고, 새문안 성도들의 1인 1선교지(기도 후원) 작성 시간, 선교사역 사진전시회(종일), 영상보고 및 선교사와의 대화 시간, 베트남인 정기 예배 및 대화 시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파송선교사 전원, 의료선교팀, 단기해외선교팀(교육1부 태국팀, 교육2부 비전트립팀, 찬양대) 등이 참가한다. 저녁 결단 예배 설교는 이동원 목사(지구촌 교회 담임)가 맡는다.

상담부 영성수련회 가저

상담부(부장 최규완 장로)는 지난 8월 27일(금요일)부터 28일(토요일)까지 2일간 본 교회 현리 수양관에서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27일 오후 2시 교회를 출발, 오후 4시 무사히 새문안수양관에 도착했다. 강사인 오세선 목사(양평 삼십리교회 부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성령론과 종말론(죽음과 그 이후) 등



◇ 상담부 부원들이 현리 수양관에서의 영성수련회를 무사히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특강시간도 있었다. 이날 영성수련회에는 상담부 지도 목사인 양혜란 목사를 포함, 상담부원 36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목사(1944~1950년) 추모예배

8월 8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는 당회원 등 많은 교우들이 추모예배를 드렸다(관련기사 면).

담임목사 동정

이수영 담임목사는 8월16일부터 보름간 휴가기간에 유럽으로 회의차 출국, 9월 2일 귀국했다. 이 목사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깔벙회의 중앙위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8월 25~29일까지는 불령거회의에 참석했다.

동정 · 단신

김성봉 집사(새로핌찬양대 지휘자) = 지난 8월 고양시 예총(예술연합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예총회장은 9개 단체(국악·미술·문인·음악·연예·연극·영화·사진·무용)를 이끄는 중책으로 인구 90만 명의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박영철 집사(8교구 의료선교부)= 지난 8월 2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석진주·조예담 양 = 지난 8월 12일(목요일) 명성교회에서 실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어린이교회학교 연합회 주최로 성경고사에서 본교회 교회학교 석진주 양(초등6학년)이 대상을 수상했고, 조예담 양(초등4학년)은 은상을 수상받았다.



황경혜 집사(10교구·새로핌찬양대)=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일산 호수공원 고양꽃 전시관 내 호수갤러리에서 열렸던 제8회 골안미술가회 작품전 '신도시 이미지 전(展)'에 유채화인 '실내 풍경'을 출품했다.



알림

《e새문안》을 창간합니다.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소식지 새문안교회 '웹진'(전자 잡지) 《e새문안》을 창간합니다. 홍보출판부와 정보통신부 공동작업으로 창간되는 '웹진' 《e새문안》을 통해 더 많은 성경말씀의 지혜와 교회소식과 정보를 '개별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된 분들은 속히 등록하셔야 《e새문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월 19일(주일)부터 e교인등록을 교회 마당에서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료 기증자 명단(가나다순)

- 김영미 권사 - 백주년 기념품 외 26점
- 김재복 ① 집사 - 사진 6점
- 민윤자 권사 - 김동익 목사 칼럼
- 엄성애 권사 - 사진 6점
- 이도희 집사 - 졸업증서 외 41점
- 이배완 집사 - 한국기독교 교육사
- 최은혜 권사 - 88년도 권찰회 기념품 외 9점

바로잡습니다

7·8월호 7면 이현주 권사=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 복지회 수화관양 고문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새문안》 지 7·8월호 17면 의료선교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mamed.com>로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기를 합심

2004년 광복절 59주년 산상기도회

2004년 8월 13일(금). 59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전도부(부장 이계희 장로)에서는 경기도 현리 소재 새문안수양관에서 권영복 목사(서울방주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하루 세 차례 광복절 산상기도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새문안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이 시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통일, 세계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의 사명을 새롭게 결단하는 큰 은혜의 축복된 시간을 나누었다.

수양관에 도착했을 때, “8·15광복절 산상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해 온 교우들은 리조이스밴드 반주와 찬양단의 인도에 따라 손뼉치며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해마다 갖는 산상기도회이지만 올해에는 550여명이나 되는 많은 기도의 용사가 수양관 본당과 로비에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국정의 안정과 경제의 회생, 이 나라 이 겨레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난국을 헤쳐나갈 용기와 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자리였다.

◆부흥집회 I. 인도 : 이수영 목사, 말씀 : 권영복 목사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

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못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셨도다.” 이수영 담임목사의 묵도와 기도로 산상기도회의 첫 집회가 시작되었다.



◇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산상기도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다함께 202장 찬송을 부르고 이계희 장로의 기도, 권사찬양단의 특송(곡: <일어나 걸으라> 지휘: 유민자 권사 반주: 박은하 집사)이 있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새 힘을 주고 도와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다.

권영복 목사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눅4:16~19)”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민족 수난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새문안교회가 무더운 여름이지만 광복절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함이 오늘 시국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3·1운동을 태동시킨 ‘신한청년회’라는 조직에 새문안교회의 서병호 장로님과 그 멤버들이 계시고 ‘파리평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던 김구식 장로가 새문안교회의 장로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한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생사 화복뿐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복을 주셨습니다. 36년의 식민지 생활의 고난과 수모는 문전옥답을 몰수당하고 민족문화 말살·창씨 개명·일본어 사용·신사참배와 궁성요배로 우상 섬기기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국지사들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연합군을 사용하여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1945년 8월 17일, 종교지도자와 애국지사 2십만명을 죽이려던 잔악한 계획이, 8월 15일 광도에 투하된 원자탄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 민족을 죽이고(2십만명 이상) 천황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민족과 나라를 기억하시어 종교지도자와 애국지사를 살려 내셨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를 지키고 누릴 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우리의 현실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아직도 전쟁은 끝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시대를 거쳐 4·19의거, 5·16 혁명과 여러 정권을 지나 지금의 참여 정부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독일의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듯 38선이 북음으로 무너져서 십자가의 북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압복장 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권 목사의 말씀 후에 교우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민족 북음화와 통일의 사명과 세계선교를 새문안교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하였다.

◆부흥집회 II. 인도: 이청근 목사

(오후1시 45분~오후3시)

점심식사 후 둘째 집회 전 시간에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에 맞추어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리듬에 따라 손뼉치고 울동하며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리조



◇ 리조이스찬양단 인도로 찬양과 울동을 하고있는 성도들.

이스 리더는 담임목사님도 함께 울동하실 것을 청하여 부흥집회의 열기를 더하였다.

두 번째 집회 시간이 되었다. 묵도 후 480장 찬송. 안경순 장로의 기도. 제5여전도회의 <성령이여 오소서>(지휘: 서봉숙 집사·반주: 김옥경 집사) 특송찬양은 약한

마음 담대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려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니 순종하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리는 온 성도들의 뜻과 믿음을 그대로 대변하여 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감동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였다.

권영복 목사는 “성도의 중보기도 (딤후2:1-7)”에 대하여 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의 1번지입니다. 기도는 믿음에 최상의 실천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갈렙은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부요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얻는 것으로 마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서 마셔야 하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얻기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교회·나라·민족에게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튼튼하

<기독교인이 우선 지켜야 할 기도 제목>

1. 법질서 지키기
2. 부지런히 땀흘려 일하는 국민되기
3. 근검절약하는 국민 되기
4. 경건절제하기
5. 이웃사랑하기
6. 크리스천의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기
7. 인재양성에 힘쓰기(꿈나무 기르기)
8. 가정을 회복하기
9. 애국애족운동 등으로 민족복음화 이루기
10. 민주복음화·남북통일·세계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는 기도하기

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군수물자와 병력이 좋고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국방이 튼튼해집니다. 이수영 목사님은 신앙 철저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애족심이 강해서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새문안교회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데 중보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특별히 대통령과 여러 고위 공직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에서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통성기도 후에 486장을 부르고 권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2부 집회를 마친 후 개인기도 시간과 자유 시간을 가졌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뿜어내고 있는 울창한 산은 더욱 푸르려진 무성한 수풀과 나무들을 안고 구성진 매미 울음소리와 갖가지 들꽃들로 조화를 이루어 아늑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숲도 우리 마음도 축복의 단비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오후였다.

◆부흥집회 Ⅲ. 인도: 이성직 목사

(오후 4시 15분 ~ 오후 5시 30분)

다 함께 247장을 부르고 이용실 장로의 기도. 제6여전도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지휘:김일애 집사·반주: 김자경 집사)는 특송 찬양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로임을 하나님께 고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찬양이었다.

권영복 목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 25~34)"는 말씀을 전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지만 저녁에 지는 석양 노을은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준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성숙시키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맺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능력·소



◇ 이날 전도부원들은 교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느라 많은 수고를 하였다.

망 가운데 바울과 같이 순교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진 곳에 그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눈물로 씨뿌린 복음이 심은 대로 열매 맺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기를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악한 무리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들고 세계 각 곳을 가지 못해도 세계 각 곳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어머니교회인 새문안교회가 민족복음화·통일·세계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며 온 교우는 뜨겁게 통성기도를 했다. 다 함께 246장을 부르고 권목사님의 축도로 2004년도 8·15광복절 산상기도회 3회의 부흥집회는 은혜롭게 끝마쳤다.

"...내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다. 귀가버스를 타려고 수양관 마당을 걸어 내려가니 길 양 옆에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 어느새 우리는 가을 속을 거닐고 있었다. 비 그친 하늘은 맑게 개이고 운악산 서쪽 산마루엔 석양 노을이 붉게 피어 올랐다. 황혼의 언덕에서 결실의 계절에 나는 지금 어떤 결실을 위한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성해 본다.☞

< 취재: 나행자 집사 >

현장2 깨끗한 서울 가꾸기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한다

지난 8.18(수) 오전 06:30에 우리 교회에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 발대식과 종로구 다짐 대회가 있었다.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이하 ‘기민협’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 행사는 이미 6월에 명성교회(서울)에서 선포식을 가진후 지역별 실천대회를 통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행사는 새문안교회가 종로구 대표 교회로 선정, 봉사위원회(위원장 : 여기락 장로)주관하여 실시했다.

현재 기민협은 교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 물려 주는 운동에 기독교민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운동을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운동은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주최로 서울시 환경부, 문화관광부,문화시민중앙협의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이성직 목사의 선창으로 7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독교방송 기독교 TV, 극동방송, 국민일보 후원으로 1999년에 교계지도자 및 정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결의문〉

1. 매주 수요일은 동네 골목 청소의 날로 정하고 새벽기도 마친 후 1시간동안 골목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다짐한다.
1. 이른 새벽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지라도 지저분한 동네골목을 내집 앞 청소하듯 깨끗이 청소하기로 다짐한다.
1. 전교회에 이운동이 확산되도록 힘써 교회와 교회간 협조망을 구축, 청소에 빠지는 골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니다. 재활용품을 철저히 가려내어 쓰레기 자원화율을 높이기로 다짐한다.
1. 젖은 쓰레기 안 버리기, 쓰레기 분리 배출 생활화로 쓰레기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다짐한다.
1. 골목청소 봉사활동을 부단히 전개함으로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던 시민들의 고질병 근절에 기여한다.
1. 이 운동이 환경분야 건전시민운동으로 육성 발전 되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깨끗한 나라” 가사말

1. 새벽부터 우리 모두모두 나와 깨끗한 거리를 가꿔갑시다
기쁨마음으로 골목길을 닦아 살기좋은 나라 이룩합시다
(후렴) 가꿔갑시다 깨끗한 거리 기쁨으로 우리 가꿔갑시다
가꿔갑시다 깨끗한 나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2. 내가 먼저 앞서 깨끗하게 쓸고 향기 풍겨나는 마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 자랑스런 도시 우리 모두 함께 이룩합시다
3. 친절 질서 청결 기독교시민운동 부지런히 힘써 실천할때에
자손만대 길이 우리 금수강산 영원무궁토록 보전되리라.

2002년 월드컵 성공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창립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200여명은 교회에서 준비한 조끼를 입은후 본회 상임이사 신신목 목사 사회로 1부 발대식을 하고, 본회 공동회장 박정근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로 가꾸고 또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민협 임원들과 서울시 직원, 김충용 종로구청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행사에 참석한 새문안성도들은 그동안 전개해온 청결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종로구 지역 골목길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운동을 아래와 같이 7가지를 결의문을 이성직 목사의 선창으로 손을 들고 굳게 결의하고 다짐했다.

“친절, 질서, 청결”의 마음을 가꾸는 공동체 정신으로 멀어져간 양심을 믿음 안에서 다시 찾아오자는 이영덕(전총리, 문민협 회장)장로의 격려사도 대언으로 전해졌다.

의식 개혁 취지로 현장에서 희생, 봉사, 수고와 활동, 실천을 아끼지 않았던 결과로 서울에서부터 전국을 우리가 깨끗하게 가꾸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발대식을 마치고 미화원들의 도움으로 교회안과 주변을 청소를 하고 친교부(부장:현숙자 권사)에서 마련한 아침식사를 하며 뜻 깊은 행사를 마음에 담았다.

이 행사를 우리교회에서는 자원봉사부 주관(부장 백운기 안수집사)으로 매주 수요일 새벽 6:30부터 각부서 및 선교회 별로 계속 진행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와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많은 인원이 동참하여 백마디 말보다는 한번 실천으로 옮겨 지역사회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전하는 지속적인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

(‘기민협’ 전화 : 2236-7114)

<글 : 박범례 집사·사진 : 양성모 집사>



5분 인터뷰

언더우드 프로젝트 수행위해 방한한 뉴브런스윅 신학교 김병철 목사

8월 8일(주일) 5부 예배 설교를 맡은 김병철 목사를 만나보았다. 미국 뉴브런스윅 신학교 국제 교육부장직을 맡고 있으며 언더우드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 목사는 언더우드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역할 수행차 한국에 왔다. 새문안교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언더우드 프로젝트 기금 15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재작년 가을 제1회 언더우드 세미나를 새문안교회에서 열었다. 또한 이수영 담임목사는 한국 언더우드 프로젝트 이사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더우드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전체 사역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언더우드 기념빌딩을 건립하는 일이다. 먼저 미국에 기념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국에도 미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기념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오고 있다. 둘째는 국제 목회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세미나를 여는 사업이다.

새문안교회에는 여러 번 왔는데, 혼자 설교는 처음이라면서, 대학부 찬양이 너무 좋았고, 예배의 모범이 체계적이며 조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한다. 김목사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실질적인 선교의 현장사역을 한다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5부 예배에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물어 보니,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인터뷰 : 편집실>

더한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위한 기도의 결실

‘파이프 오르간 설치기금’을 헌금한 황용환 집사

오르간 연주로 예배를 드리는 새문안 교회에서도 이제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지난 7월 제교회 때 ‘악기의 왕’이라고 불리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황용환 집사·한옥순 권사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음 새문안 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차 자유스러워지는 요즘의 예배 분위기와는 달리 경건한 예배를 접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로 예배를 드린다면 참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의 기회이고 성도들이 가장 성도다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한 동기는 없고 단지 이런 우리의 소망이 결단의 씨앗이 된 것이지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서 무척 당황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황용환 집사의 헌신의 시작은 군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에 있을 때 군신우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때 만난 군종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열정이 같아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약속을 했지요. 중계동 삼일교회를 개척하고 5년간 봉사했습니다. 미리 목사님과 교회의 체계가 갖추어지면 오히려 제가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처음 교인 10명이 시작해서 30명, 50명, 300명, 6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시점에서 아주 마음 편하게 삼일교회를 떠났습니다.”

황집사는 삼일교회를 개척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해서 또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후배 목사님과 함께 일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20년간 낙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비전이 20년 간 선교하고, 20년간은 목회를 하고 또 20년 간은 중국선교를 하면서 일생을 마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산 남산교회를 개척하고 5년 간 봉사했지요. 새문안교회로 오게 된 것은 아버님과 같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집이 연회동

이라 가깝거든요.”

일생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무척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처럼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신다.

“성격이 무척 적극적이세요. 한번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 순종과 헌신의 삶이 오히려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하는 황용환 집사 부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마는 성격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확신한 일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헌신해야 하고 그 헌신이 물질이건 마음이건 순종하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듯이 한옥순 권사 역시 헌신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

교회에는 헌신의 모습들이 무척 다양한데 왜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하겠다고 생각했을까?

“이전에 개척한 삼일교회나 일산 남산교회에서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는 물소리 외에 사람이 만든 악기 중 가장 자연스러운 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소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이죠.”

군에 입대하고 있는 아들과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황 집사 부부는 ‘말씀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을 가정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정직’을 강조하는 것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할아버지가 장로셨는데 어머니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새 고무신을 신고 부흥회에 가셨는데 새 고무신을 잃어버리셨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꼭 주일학교를 보내면서도 당신은 안 나가셨죠. 믿는 사람의 정직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어머니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지요. 모든 교우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토대가 정직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많이 전파하셨으면 좋겠다는 한옥순 권사, 교회가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일 만큼이라도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나라의 소망도 생긴다는 황용환 집사의 가정과 일생에 순종과 헌신의 열매가 풍성해지리라 믿는다.☞ <인터뷰/정리 : 심정남 집사>

✦ 게스트 코너 |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목사

“복음의 진리는 순종하며 생활화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일, 주일 3부 예배에 호주 브리스베인(퀸즈랜드 주도, 동부 항구도시) 출신의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목사가 새문안을 방문하여 설교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 안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통역은 장신대 조은식 목사가 맡았다. 파커 목사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복음의 진리가 마음이나 가슴 혹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부족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데이비드 파커 목사를 만나 몇 가지를 여쭙어 보았다. 만면에 온화한 웃음이 가득한 저명한 신학자와 마주 앉자마자, 지구 저편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찾아오신 반가운 손님이라고 인사하고 그곳은 겨울일 텐데 이곳이 덥지 않느냐고 묻자, 호주도 여름에는 더우므로 견딜 만 하고 브리스베인의 겨울은 온화하다고 유쾌하게 웃었다. 자신의 소개를 부탁하자 침례교 목사이며 자문을 받는 신학자(a Consultant Theologian)라고 했다. 즉, 교회와 교인생활에 관련되는 신학, 성서, 역사적 과제들을 연구, 집필, 강의, 설교 등을 하며 또 편집, 출판의 일을 맡는다고 했다. 시드니 소재 신학대학에서 신학, 윤리학, 신약학과 예배학 등을 가르쳐 왔으며 주된 관심 분야는 신학과 복음주의, 침례교역사와 호주 교회이며 성서고고학 분야에도 흥미를 가져 여러 차례 성지를 다녀오고 자료를 모아, 이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관여하고 있는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신학위원회(WEA Theological Commission)가 하는 일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미국 워싱턴주 엘몬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산하 기구로서 신학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신학자들을 연결하고 성경적 진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복음신학 평론지(ERT)」와 「복음주의 신학소식지(WEA Theological News)」 등을 편집 발행하고 있으며 WEA TC 웹 사이트도 운영하여 세계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관심에 관한 각종회의, 세미나, 출판물, 교수, 신학적 연구 발전의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웹사이트 주소: www.worldevangelical.org/theology.html)

여러 기독교 교단과 교파의 연합과 협력의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이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후 바로 WEA 같은 기구가 회원교회들 간의 자율과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보다 협력과 연합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한국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과 앞으로의 통일에 기여하는 역할을 당부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세계복음화에도 지원을 요망하는 말을 잊지 않는 데이비드 파커 목사는 2002년 58세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부인 조이스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었고 현재의 부인 다이앤은 퀸즈랜드에 있는 장로교 노인복지원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담/정리: 김용근 집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은 믿음

○... 지난 8월 22일(주일) 오전 10시 10분 본교회 제2 교육관 101호실에서 있었던 성인2부 주최 이광자 권사(서울여대 총장) 초청 특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의 요약 글을 실는다. <편집자 주>...○



이광자 권사(주님의 교회 · 서울여대 총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수만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100% 믿음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말씀은 ‘믿음’을 대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를 그대로 믿고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성경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때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



5분 인터뷰

1. 21세기 여성교육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의 유연성과 섬세함, 직관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드웨어(Hardware)의 시대는 지나고 소프트웨어(Software) 시대이며 여성의 가능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타인이나 남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시대이며 독립된 인간으로 여성이 활동할 공간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구조적으로 가부장적·3중지도의 유교적 관습에 연연하지 말고 탈피해야 합니다. 자긍심과 독립적 인격체로서 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가 온당하게 발전하려면 남·녀가 같이 상부상조하고 동고동락하며 각기 장점을 모아 함께 가야 합니다.

서울여대는 초대 고흥경 총장 때부터 지(智)·덕(德)·술(術) 즉 3H(Head, Heart, Hand)를 학교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헤드(Head)는 지혜를, 하트(Heart)는 정성을, 핸드(Hand)는 실천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잘 이루어지므로 공동체교육을 시킵니다. 생활관교육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도자 양성을 하며 자신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목적과 방법이 좋아도 인간관계를 잘 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교회에서의 여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성도 전문여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동 교회의 경우, 교회의 회계총무를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여성성도가 여성장로를 뽑는데 협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투명하며 정직하고 욕심이 없으며 효율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 수 있고 직책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목사, 장로, 여성의 인식이 변화 되어야 합니다.

3. 교회 여성의 바람직한 자세는?

여성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도 같은 공동체로서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이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가정 내에서 동등하게 가지 못하면 가정 밖의 사회에서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인터뷰 : 김창란 권사>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누구나 끊임 없는 문제들이 있으며, 인생자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신앙과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주신 문제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들은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며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문제를 통한 고통과 역경은 축복을 위한 ‘열린 문’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넣어야만 자동차는 움직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때로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는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정리, 치료되고 변화, 다듬어져 가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기도라 합니다. 감사기도에는 세 가지 차원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①물리적 차원의 감사로 이것은 조건부적 감사입니다. 예컨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일반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②철학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찰적이고 인식적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가 부해졌거나 병들었다 건강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기도입니다. 새옹지마(塞翁之馬) 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요,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축복입니다. 이런 인식적 차원의 감사에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과 불행이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느끼게 됩니다. ③신학적·신앙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어떤 환경적 이유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삶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조건 없이 감사하고 긍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



◇ 서울여대 총장 이광자 권사가 성인2부 성경공부반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를 기도나 신앙의 차원으로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나 섭리를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신앙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인생을 영여가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이고 행하여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정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가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을 이별하고 막상 떠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고쳐지고,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품이 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브리서: 11장 1절).”

온유와 순종으로 살아온 지난 백년

지난 6월 26일로 백수를 맞은 조병린 권사



◇ 왼쪽에서 세 번째 앉은 분이 조병린 권사

지난 6월 26일 조병린 권사가 백수를 맞았다. 10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곱고 깔끔한 모습을 간직한 조권사는 귀도 밝고 눈도 밝고 식사도 잘 하고 건강도 좋으시다. 성경도 읽고, 요람도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신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물어 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안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읍시다!’ 라고 인사하신다.

평북 선천에서 보성여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대에 선교사들과 함께 서울로 내려왔다. 부군인 고(故) 허봉락 장로가 YWCA일을 보면서 새문안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새문안에서 더 보냈다. 최초의 유치부 교사, 청년부 교사, 구역심방, 전국여전도회 회장, 권사회 회장 등 안 해본 봉사가 없을 정도로 70세까지 쉬지 않고 봉사를 하고 선교사 지원도 꾸준히 했다.

조병린 권사의 전도로 새문안교회에 등록하여 거의 60년을 옆에서 조 권사를 지켜본 이종숙 권사는 이렇게 말한다. “거의 평생을 보아왔지만 누구 욕하는 것,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잘 있었어? 안녕하시고~, 애는 잘 있고...’ 권사님 말투는 절대로 끝말을 높이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친정어머니가 딸이나 외손자를 대하듯이 온유한 조 권사는 6남매(허장훈· 장운· 성진· 성운· 성희· 성필)를 양육할 때도 2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었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이웃의 말이다. 당연히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한다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효(孝)는 구(舊)시대의 유물처럼 치부되는 요즘, 조병린 권사의 가족들이 실천하는 온유와 순종의 모습은 맑디 맑은 계곡물처럼 청량하기만 하다.■

산상리 새벽별

안재찬

산상리*
성산에
별이 들었어요
파릇파릇 119
새벽별이 들었어요

한 손에 맞췄고
한 손에 촛불 들고
지구촌 어디든지 씩씩 달리어
어둠을 밝히는 119소방성
이름표 달았어요

고사리 손모야 사흘
마침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님
기뻐 저마다 눈물 한 방울
하나님나라 밝이랑에
똑똑 떨구었어요

어둠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새문안 새벽별
파릇파릇 믿음이 한 뼘 자라나
꼬마선교사로 혈혈
날개 달았어요

* 산상리 : 새문안 수양관이 있는 동네이름
* 새문안교회 초등 1·2학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2004. 7.23~7.25) 하나님나라 꼬마선교사 주제로 열리다

* 아래 기사는 지난 8월 8일 오후 5시, 고 김영주 목사 추모예배 시, 윤경로 장로
(새문안교회 사료관 관장)가 보고한 내용 전문이다.(편집자 주)

김영주 새문안교회 3대 담임목사 추모 예배와 그 의미

윤경로 장로
(새문안교회 사료관 관장)



◇ 새문안교회 3대 담임목사인 김영주 목사의 생전의 모습.

이렇듯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비로소 목사님의 뜻을 기리며 추모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만사지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 목사님을 추모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이 테올로기 하에서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고, 여기에 6·25동족상쟁이라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월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할 정치적·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여러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아직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생존해 계시다면 109세임을 감안할 때 이미 소천하셨을 것이라 믿어져 이렇게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목사님께서 우리 새문안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시무하신 기간은 만 6년8개월 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김 목사님께서 새문안 강단을 지키신 6년 8개월의 기간은 한마디로 칠흉같이 어둡고 혼돈스러웠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김 목사님이 부임하신 1944년은 일본의 식민지배통치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으며, ‘대동아전쟁’중이었습니다.

이같은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교회 또한 극히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앞서 동방요배와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해야 했으며,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교회의 종과 심지어 교회 철대문까지 공출당하는, 한마디로 질곡과 형극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김영주 목사님은 바로 이같은 시기에 새문안 강단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6년 8개월의 기간은 결코 오늘날과

I. 어둡고 혼란한 시기 새문안 강단을 지키심

오늘 추모예배를 드리는 김영주 목사님은 1944년 1월부터 납북당하신 1950년 8월까지 만 6년8개월 동안 새문안 강단을 지키신 새문안교회 3대 담임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올해는 김영주 목사님이 새문안이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지 꼭 회갑에 해당하는 60돌을 맞는 기념비적 해이며, 납북당하신 지 만54년을 맞이합니다.



같은 자유롭고 광명한 세상에서의 목회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옷깃을 바로잡으며 경의와 추모의 예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무 1년 8개월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으나, 준비되지 못한 해방으로 정국은 좌·우익의 대립과 반목 등으로 혼돈에 혼돈을 거듭했고, 교회 또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혼미를 거듭한 정국과 혼란 속에서 김영주 목사님은 새문안교회 재건은 물론, 한국교회의 지도력으로 부상하셔서 혼미한 정국과 교회 재건에 앞장서셨습니다. 해방이 되자, 곧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지도자들이 입국하였습니다. 김영주목사님은 이들의 귀국을 환영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 환영예배’를 주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독립축성기독교 중앙협의회 부회장으로, 1946년에는 기독교문화협회 위원으로 1947년에는 한국기독교연합회 사회사업부 부장 등 당시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력으로 활발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한편 김영주 목사님은 해방정국에서 교회 내적으로도 역동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이 임정요인으로 활동하다 돌아오신 우리 교회 장로출신인 김규식 장로님과 서병호 장로님, 그리고 일제말(日帝末) 강제 출국당했다 다시 돌아오신 원한경 박사님 등과 함께 교회 재건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마치 해방을 예견한 듯 해방 한달정도를 앞둔 1945년 7월 8일 김승호·노덕순·이봉희·홍용현 등 4인 장로를 피택하여 해방 이후 교회재건을 준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47년 8월 임상하·오인명·허봉락·김대보 4분 장로님을 장립하여 교회 내의 지도력을 보강하여 이를 토대로 드디어 전 교인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탑예배당을 1949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렇듯 역동적인 교회재건과 한국교회 지도자로 활동하시던 중, 1950년 6·25전쟁이 터졌고, 이로써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새문안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이 공산군에게 장악된 8월 중순경까지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적 기능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배당을 인민군 병사 용도로 징발하면서 예배가 중단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주 목사님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예배당을 병사와 선전용 연극장소로 하겠다며 따발총으로 위협하는 공산군에게 “너희가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내 눈앞에서 성전을 침범



◇ 1949년에 세워진 옛 새문안교회 종탑예배당.

할 수는 없다”는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II. 사실상 ‘순교’하셨다고 보아야

이 부분에 대해 다소간의 오해와, 특히 1950년 7월 10일 서울 YMCA에서 개최된 이른바 ‘인민군환영대회’에 김영주 목사님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이리저리한 논란이 있는데, 차체에 이에 대한 교회사가(敎會史家)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인민군환영대회’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한 직후인 7월 초 북한의 이른바 ‘기독교 민주연맹(위원장 김창준 목사)’은 남한측 교단별 지도자들을 불러 ‘인민군환영대회’를 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 불려간 사람이 우리 장로교측에서는 유호준 목사와 김종대 목사였습니다(감리교측 박만춘 측, 심명섭, 구세군측 황종율, 성결교 1인).

두 차례에 걸친 회합과 절충 끝에 7월 10일 YMCA회관에서 이른바 ‘인민군환영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회 진행 사회와 환영사 일부를 우리 장로교측에서 맡기로 해 대회 진행 사회는 유호준 목사가, 그리고 대회 환영사는 김종대 목사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날 사회를 맡은 유호준 목사가 불참하여(조선인

목사 일본 이세신궁 참배 때도 사진 찍는 자리에는 서지 않았다) 다른 목사가 대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의 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들어 혹자는 그분이 혹 김영주 목사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영주 목사님이 유호준 목사 대신 ‘인민군환영대회’에 나가 사회를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그 이유는, 이 대회를 주선한 목사분들은 대부분 남한출신 목사들(유호준·김종대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기회에 다시 말해 이 대회를 계기로 해방 이후 북한출신 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교단 교권을 손에 넣으려 했던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유호준 목사는 훗날 아래와 같이 완곡하게 시인한 바 있습니다. 즉 “공산체제에서도 계속 종교활동을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나섰고, 교단과 교권을 장악했던 자들이 북한출신이어서 남한출신들이 교권을 장악해 보자는 저의도 있었다고 들려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남한 출신 교역자들이 북한측과 이 같은 정치적 ‘홍정’을 했을 개연성은 당시 이 대회 강행의 실무를 맡았던 북측 실무자였던 김옥이라는 자(북측 서울 종교담당 사무국장)가 첫 번 모임(7월 초 유호준 김종대 참석 모임)에서 유호준·김종대 목사 등 남측의 요구 조건을 ‘단번에 거절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인즉, “인공(人共)은 어떤 단체나 개인을 옹호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측 교역자들의 요구가 바로 교권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제의하였을 가능성이 짙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출신인 김영주 목사가 이 대회에 나가 사회를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해방 이후 김영주 목사님은 우익측인 우리 교회의 김규식 장로와 서병호 장로, 그리고 원한경 박사를 비롯한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등과 교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목



사님이 ‘인민군환영대회’에 나갔을 가능성은 더욱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을 인민군 병사 용도로 징발 을 강요하며 따발총으로 위협하는 인민군을 향해 “너희가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내 눈앞에서 성전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말씀의 진위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새문안교회 70년사』 116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입니다. 『새문안교회 70년사』가 발간된 해가 195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 전해쯤 탈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6·25전쟁이 지난 지 3년만(휴전 1953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바로 이 점에 유념할 때 당시 김목사님의 납북과 당시의 정황을 교인들 가운데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증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70년사』의 이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 김영주 목사님은 일제 말기 칠혹같이 어두웠던 형극의 시대와 혼란을 거듭하던 해방공간의 혼돈 시대에 우리 새문안교회 강단을 지키시다 불행하게도 6·25전쟁 중 납북당하신 새문안 3대 담임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납북당하신 지 반(半)세기가 넘도록 생사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순교’하셨다고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야기터 ◇

나의 비전을 찾은 태국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우리들이 울며 드린 기도가 씨앗이 되기를



김택수 학생(중등부)


태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별로 호감이 가는 나라가 아니었다.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 엄청 못사는 나라, AIDS의 천국, 마약 밀거래가 판치는 곳, 너무 더러운 나라라는 등 나쁜 이미지만 떠올랐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배우면서 태국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뿐 태국은 나의 관심 밖이었고, 굳이 생각한다면 나쁜 이미지만이 남는 나라이었다. 그러나 지난 겨울, 나는 ‘태국 단기 선교단’을 모집한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좀 느긋한 마음으로 첫 번째 준비모임에 참석하였다. 거의 30분쯤 늦게 집회장소에 들어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엄숙한 분위기에 놀려 가만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전도사님이 ‘너는 왜 태국에 가려느냐’고 했을 때, 나는 장래 꿈이 의료선교사인데 먼저 연습을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냥 태국 구경하고 찬양 몇 곡하고 오면 되는 줄로 여겼던 생각은 연습이 강도를 더해 가면서 접어야 했다. 배워야 할 워십(worship) 댄스가 늘어나고 어려워지면서 널널했던 생각은 간데없고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다. 나는 ‘Get Down’ 워십팀에 소속되었다. 이 곡은 3분 정도인데, 같은 동작이 하나도 없고, 모든 동작이 빠르게 연결되어 숨돌릴 틈도 없다. 연습이 힘들었지만 다 같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버텨나갔다. 그렇게 워십댄스 연습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 연극 연습을 했다. 연극에서의 역할은 예수님 역이었다. 나의 장난스러운 이미지를 다 버리고 엄숙하고 인자한 표정의 예수님 역을 하려니까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정말로 힘들었다. 그러나 힘든 연습이나마 제대로 끝내지도 못한 채, 우리는 태국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태국에 도착해서 나는 날씨에 적응하느라 고생했다. 약 7시간 전에만 해도 있는 옷 다 껴입었다 반팔에 반반지로 입어야 하니 말이다. 그리고 방콕을 거쳐 메쓰위공항에 도착했을 때 좀 놀랐다. 아주 작고 불품없는 시골 공항이었다.

‘라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한, 첫 번째 집회는 엉망이었다.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할까하는 긴장감 속에서 공연을 시작했다. ‘저게 몬 깃이래’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과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의 전도사님과 선교사님, 우리는 모두 당황스러웠다. 전도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처음엔 다 그런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공연을 더해 가면서 우리의 팀워크 나아지고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는 듯 했다. 며칠이 지나자 걸어 다닐 때도 워십댄스 할 때처럼 걷고, 탄 일하다가도 워십노래만 나오면 워십댄스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였다.

‘짜꼬이 마을’에서 공연을 할 때는 겁도 났지만 저절로 힘이 솟았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도 없는, 귀신을 믿는 마을인데 그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하였다. 비록 맨 바닥이었고 땀에 앉아서 했지만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나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나에게 ‘애가 왜 이래, 어디 아픈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좀 씩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그 때 그들을 위하여 한 나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태국단기선교를 갔다가 와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기도하면 조금씩 이유 모를 눈물이 맺히고 괜히 가슴이 후련할 때가 많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꿇고 하고, 통성으로 하는 버릇도 생겼다. 태국 단기선교 기간은 누구 말처럼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다. 비록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아프던 것도 없어지고, 괴로운 것도 사라져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었던 것 같다. 태국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보람 있는 기회였다. 

◇ 이야기 터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

국토순례를 다녀와서

초등 5·6부에서는 교사6명, 학생 15명 모두 21명이 8월 9일~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원 고구려 문화를 중심으로 국토순례를 다녀왔다. 학생 리더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진 못했다. 1학기 제자훈련을 수료한 친구들과 희망하는 몇몇 학생들이 참여했다. 날씨가 무더워 힘든 점도 많았지만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순례 여행이었다. 몇몇 친구들의 소감문을 소개한다.


△ 조령관문까지 와서 좀 힘들었다. 전도사님과 함께 가니 힘이 좀 났다. 6km는 내가 걷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걸으셨다. 그곳은 물이 맑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너무 아름답다. 맑은 하늘, 좋은 땅, 맑은 물... 참 훌륭한 그림 한폭이었다.
- 5학년 이혜준 -

△ “첫째 날 오늘은 문경새재라는 곳에 갔다. 태조 왕건 촬영장도 보고, 거기서 용사교, 승평문, 당의문, 고려궁, 장명진, 백제궁 등의 유적지도 보았다. 그 곳에는 옛날 죄인들을 고문할 때 쓰던 형틀도 있었고, 전쟁무기도 있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11km나 되는 문경새재 길을 걸었던 일이다. 힘들었지만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배웠다. 뿌듯했다.

둘째 날 아침 체조를 마치고 식사 후에 곧바로 바위산에 갔다. 그곳은 말 그대로 바위로만 이루어진 산이었다. 그곳에서 ‘장길산’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했다고 한다. 사진을 찍은 후에 수중 촬영장으로 갔다. 옛날 기와집을 그대로 표현 한 게 신기했다. 그곳에서 멋있는 기와집을 배경으로 다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은 충주댐에 잠길 뻔한 문화재를 옮겨놓은 ‘청풍 문화재 단지’라는 곳에 갔다. 처음에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처럼 걷고, 또 걸었다. 그 곳 정상에 가보니 ‘망월산성’이라는 곳이 있었다. 주변풍경이 한 눈에 보였다. 점심은 서울에서 청풍까지 오신 권사님께서 사주셨다. 저녁에는 맛있는 고기 파티를 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본 것도 많고, 재미있게 놀았던 신나는 하루였다.“
- 6학년 손수빈 -



◇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토순례 행진을 한 초등 5·6부 교사 및 학생들.

△ “오늘 하루 동안의 기억에 남는 일은 문경새재를 걸어간 일이다. 나는 끈기가 없어서 빨리 포기한다. 근데 오늘은 힘들어도 참으면서 끝까지 갔다. 다른 친구, 언니와 오빠들도 가니까 계속 뒤쳐졌다. 내 앞에 사람들을 쫓기 위해 뛰어가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뛰면 안 된다고 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걸어갔다. 제 1관문을 통과 할 때는 뒤쳐지지 않았는데 제 2관문부터 뒤쳐졌다. 엄미경 선생님과 예현이랑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다. 걸어가는데 벌레 소리가 정말 듣기가 아름다웠다. 우리는 너무 뒤쳐져서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께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왕 뒤쳐진 것 쉬면서 가자고 하셨다. 어떤 정자에 누워서 5분 쉬고 갔다. 누웠는데 피아노 소리와 찌르레기 소리, 매미 소리들이 모여서 정말 듣기가 좋았다. 우리가 이 작은 몸으로 힘들게 11km나 걸었다니 참 놀랍다. 정말 힘겹게 걸어갔다 끝까지 우리가 꼴등을 차지하고 말았다. 다 와서 그 힘든 발걸음을 멈추고 버스에 올라탔다. 숙소로 와서 머리를 감고 집사님들을 도와드렸다. 오늘 밥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밥을 그렇게 많이 먹은 적은 없다. 압튼 오늘을 좀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루였다. 문경새재를 다음엔 가족과 함께 걷고 싶다.” - 5학년 김은정 - 

◇ 이야기터 ◇

중등부 여름 수련회, 파워 크리스천들의 힘찬 결단

언젠가 중등부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무슨 시기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라고요”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사춘기(思春期)’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어쩌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중등부 학생들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몹시 거세고 빠르게 부는 주위의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에 맞서려 하는 것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세상에 홀려진 모습이 아닐까 하는…….

서울 시내의 짙 막힌 도로, 한여름의 열기에 지친 사람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학원생활, 챗바퀴처럼 매일 돌아가는 계획표를 뒤로 한 채 2004년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시작되었다. ‘세상에 홀려진 파워 크리스천(8월 1~3일)’이라는 주제로 메주자, 테플린, 디아스포라 등의 단어와 함께 디아스포라(세상 속에 홀려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 보고 닮고자 하는, ‘파워 크리스천’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된 것이다.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림(겔 11:16~21)’이라는 소주제 아래 디아스포라가 무엇이며, 중등부 학생들에게 신앙에서 디아스포라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또한 성경과 우리의 삶 사이에 문화적 다리를 놓기 위해 ‘열린 예배’ 형식으로 구약 사무엘서의 주요 사건을 현대문화적 표현 방식으로 연극, 오페라, CF, 뮤지컬 등으로 조별 발표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 좋은 첫날을 보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산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전날의 ‘열린 예배’의 표현에서 한 걸음 나아가 단편영화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모두가 다니엘서의 인물들이 되어 디아스포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체험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수련회 기간에는 디아스포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 체험을 하기 위해 각 방 문 앞에 메주자를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안을 출입할 때마다 암송한 신명기 6장 4~9절을 암송하는 체험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부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이 120여명의 중등부 학생을 위해 바비큐를 굽는 대규모의 ‘광야의 식탁시간’과 중등부 학생회 주관의 ‘즐거운 외침’의 하나되게 하는 축제에서 수련회는 절정을 이루었다. 또한 저녁찬양 집회 때는 중보기도 시간과 중등부 학생회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둘째 날이 지나갔다.



◇ 이른 아침, 수양관 뜰에서 체조를 하고있는 중등부 학생들.

아쉬운 마지막 날, 디아스포라를 산 이스라엘인들의 삶과 이스라엘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는지에 대해서 성경말씀을 손으로 짚으며 이야기했다. 수련회의 단는 예배인 결단의 시간에 유대인들이 집과 회당,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 신조로 삼은 테플린을 나누어 주고, 수

련회에서 배운 디아스포라로서 홀려진 파워 크리스천들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등부 모두는 세상으로 홀려진 디아스포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회당과 교육과 기도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중등부 학생들도 세상 속에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요즘도 가끔, 중등부 시기가 사춘기(思春期)가 아닌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라고 말한 학생을 가끔 본다. 이제는 고등부 학생이 되었고, 중등부 때의 모습이 아닌 성숙한 고등부 학생이 되었다. 그를 만날 때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넉넉히 극복했다는 확신이 든다. 지금은 만나면 그냥 꾸벅 인사만 하지만……. <박경석 교사>

기독교 미술에 나타난 천사

윤익영 집사 초청 3남선교회 문화 특강

제3남선교회(회장: 김철경 안수집사)는 지난 8월1일 개최된 문화부 주관 월례회시 “그리스도교의 미술—천사”라는 주제의 특강시간을 가졌다. ‘새문안지’ 성화감상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새문안교회 윤익영 집사(창원대 미술학과 교수)가 강사로 수고했다.

50여명의 3남 회원들과 관심있는 여러 새문안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참석자들은 ‘천사’들의 형상이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미술 작품 슬라이드 감상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천사들 중의 첫 번째 계급 천사들의 주 임무가 찬양이며, 모든 계급의 천사로 구성되는 ‘천사찬양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일 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 “첫번째 계급 천사인 ‘세라핌’의 주임무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윤익영 집사.

<특강내용 요약>

‘천사’는 처음에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룹’으로 나타

나는데, ‘그룹’은 짐승 모습과 사람 모습이 뒤섞인 날개 달린 존재를 말하며 옛 중동의 여러 그림에서 파수꾼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오는 ‘그룹’은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킨다.

에스겔서 1장 및 요한계시록 4장 등에 따르면, 그룹들은 각기 2쌍(혹은 3쌍)의 날개를 지닌 네 형상의 생물들로서 각각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와 결합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룹들이 네 명의 복음서 기록자를 의미하게 되며, 중세 미술의 주요 테마의 하나로 등장하고 ‘하늘예배’, ‘최후의 심판’ 등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킨다.

- 마태: 날개 달린 사람, 지혜, 예수의 인성과 체현
- 마가: 날개 달린 사자, 힘, 예수의 왕위, 사막에서 길을 예비
- 누가: 날개 달린 숫소(혹은 송아지), 봉사, 예수의 회생과 속죄, 성직
- 요한: 날개 달린 독수리, 민첩, 사막에서 길을 예비, 예수의 신성과 승천

서기500년경 기독교는 유대교 전통에 기초하여 ‘천사’의 계급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계급은 치품천사(세라핌), 지품천사(케루빌), 좌품천사(Thrones)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주위에서 그분을 모시며 찬양을 담당하며, 두번째 계급은 주품천사(Dominations), 역품천사(Virtues), 능품천사(Power)들로서 별들을 포함한 우주의 구성요소를 관장한다.

세 번째 계급은 권품천사(Princedoms), 대천사(Archangels), 천사(Angels)로서 지상의 왕국을 수호하고 하

나님의 사자로 일한다. 특히, 모든 계급의 천사들은 ‘천사 찬양대’를 구성하였는데 그들이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상의 조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많은 화가들을 매료시켰던 주제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천사 가브리엘은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나팔수로 전해지고 있다.

초기의 교회 미술에서는 천사를 날개 없이 머리에 후광만 있는 것으로 그렸는데 6세기경에 이르러 날개를 달기 시작했으며, 중세 때는 여러 계급의 천사들 가운데 특히 세라핌과 케루빌에게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했다. 고대 종교나 예술에서 ‘날개’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한다.☞

<정리: 3남선교회 문화부장 고영준 집사>

하나찬양대

거제도 '회복의 교회'를 다녀와서

박지선 대원 (하나찬양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아하는 문구이면서도 그 뜻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올 수 있었다.

하나찬양대는 여름 수련회로 8월1일부터 3일까지 거제도 회복의 교회에 다녀왔다. 80여 명이나 되는 대원과 가족들은 여느 때와 같이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수련회 길에 올랐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거제도 회복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회복을 얻어 돌아와곤 한다는 능력의 교회이며, 개척교회로 시작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도착예배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김기홍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분명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텐데 그 동안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것이었을까? 목사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게

내 머릿속을 떠돌던 추상적인 개념들을 분명하게 바꿔 놓았고, 마치 귀가 깨이는 것처럼 내 안으로 속속 들어와 박혔다.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 대한 답은 내 자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궁극의 가치이며 가장 고귀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나를 더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예수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곧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진리에 대한 간단 명료한 설명은 내게 큰 기쁨으로 자리잡았다. 바로 이어 최예철 집사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교회에는 십자가에서 퍼져 나오는 불빛으로 인해,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긴 귀여운 캐릭터 그림과 '오직 주님'이라는 글씨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깊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숙소가 부족한 탓에 목사님은 예배당에서도 잠을 잘 수 있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배당에서 잔다는 것이 어찌 좀 어색했다. 김명옥 권사께서 기도 중에 예배당에서 잘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 드릴 때 진한 감동이 묻어나와 나도



◇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함께 한 하나찬양대 대원들.

함께 은혜를 받았다.

상쾌한 아침을 맞으며 눈을 떴을 때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맛있는 아침 식사였다. 여행 와서 아침에 이렇게 큰 배려가 담긴 닭죽을 먹게 될 줄이야... 물놀이를 한 후 회복의 교회로 돌아와서 신선한 회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친교 시간에는 예정에 없던 3조의 특송이 있었다. 조장이신 전혜용 집사께서 자발적으로 조원들과 함께 특송을 준비한 것이다. 특송을 부르는 이들과 듣는 이들 모두 넘치는 은혜로움으로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포크댄스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원이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댄스를 열심히 가르쳐 준 강단옥·고희진 대원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여기저기에서 웃음꽃이 피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견학 길에 나섰다. 6·25 당시 인민군과 중공군의 수용소였던 곳으로 휴전을 앞두고 수용소 내부에서 반공과 친공으로 나눠 학살과 폭동이 자행되었는데 사상전의 끔찍한 참상을 느끼게 해준 곳이었다. 또한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체험 학습을 하기에 좋은 곳으로, 포로들이 만든 죽창과 도끼 등의

무기를 들고 움직이는 모형들을 보았을 때는 섬뜩함이 머리털까지 곤두서게 했다. 사상이 복잡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과거를 직시하고 사상을 바르게 정립하기에 좋은 곳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장소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침 예배에서 김기홍 목사와 대장께서 수련회의 감동으로 인해 격양된 목소리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선창하셨다. 내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간 수련회였기 때문에 그분들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기회를 드린 것 같아 은혜가 절로 넘쳐나고 눈물이 앞을 가려 건딜 수 없었다. 또한 최근 우리 찬양대에 새로 들어온 대원들이 많았는데 이번 수련회로

하나찬양대에 깊은 인상을 받고 진심으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수련회의 보람이 한층 크게 와닿았다.

이번 수련회는 멀리 떠난 만큼 깊은 감동과 감사로 충만한 수련회였다. 아름다운 자연, 어르신들에서부터의 헌신과 봉사, 교통과 좋은 날씨까지 허락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린다. 이렇게 은혜로 심신을 재충전하고 돌아와 2004년의 하반기는 세상에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찬양대는 더욱 부흥하리라는 확신으로 가득찬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그 얼굴을 향하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

새로핌찬양대

존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로핌찬양대 여름수련회



안강현 집사
(새로핌찬양대 총무)

새로핌 찬양대는 지난 8월5일부터 8월7일까지 2박 3일 동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자" 라는 주제로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리 새문안수양관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수련회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영적 양육이라는 측면과 잠시 동안 지친 세상의 삶을 떠나 자연과 벗삼아 휴식을 취하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하계수련회의 경우 그 기간이 대개 여름 휴가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자칫 영적인 양육이나 수련보다는 휴식에 그 초점을 맞추기 쉽다. 이러한 양면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 수양관을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운 수련회를 마치고 본관 앞에 모인 새로핌 대원들.

있는 찬양대의 수련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편하고 즐거운 것 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모았다. 그래서 금년 새로핌 찬양대

하계수련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말씀을 기초로 한 영적 연단과 함께 교회음악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과 음악적인 소양의 고취에 두었다.

8월 5일 새문안 수양관에 도착해서 2박 3일의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예배와 교회음악강의 그리고 음악실기 17시간, 휴식과 교제의 프로그램 8시간으로 배정했다. 우선 김명자 목사님 주관으로 빌레몬서 강해를 통한 사도바울의 신앙적인 열정과 믿음의 동역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배웠다. 저녁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우리 찬양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았고, 마지막 날 밤에는 참여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음악이론 강의는 우리교회 음악교육원 이철구 교수를 초빙하여 두차례 특강을 들었는데, 8월 5일은 “찬양대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8월 6일은 “종교개혁과 개신교 음악”이 주제였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는 새문안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귀한 시간을 나누었다. 음악실기는 김성봉, 권혜영, 김혜선 집사님이 발성과 시창, 그리고 리듬에 대해 진행해 주었으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대원들이 음악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극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짧은 2박3일의 기간이지만 우리 새로뫼 찬양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내내 동행하셨음을 확신하며, 영적연단과 음악적인 수련 그리고 휴식이 조화를 이룬 기쁨이 있는 수련회였다고 감히 자평한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 기쁨으로 화답됨을 확인하는 수련회가 되었다. 끝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해 내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명자 지도목사님,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후원해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대장 최정선 장로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를 위해 최선의 강의를 해주신 이철구 교수님, 굿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신 부대장님들, 또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완벽하게 감당해 주신 대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㉑

새남찬양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사랑의 교제 나눠

새남찬양대는 8월 7일과 8일, 1박 2일 간 새문안수양관에서 가족 포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짧지만 즐거웠던 수련회를 가졌다.

교회버스로 수양관으로 가는 길에, 교통이 지체되자 유재현 대장께서 마이크를 잡고 참석 대원들과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린 자녀들의 귀여운 노래자랑이 곁들여져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몇 달 전 새남이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었던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ACTS)에서 수학 중인 Carolyn 선교사(인도)와 Shalom 선교사(에티오피아)도 참가하여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다.

도착예배에서 중창 1팀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점심식사 후 파트별 탁구대회를 가졌는데 우승은 간식 조달 나갔다가 늦게 와 한 팀이 된 이경준(Tenor 1)-나영진(Bass) 조가 차지했다. 이어 수영장에서 벌어진 수구 시합은 모두가 나이를 잊고 정말 즐거워했다. 특히 주광 집사는 실점 위기에 수영장 밖에서 다이빙으로 몸을 던져 막아내는(비록 실패했지만) ‘논개류’의 투혼을 발휘함으로써 나중에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물놀이는 필연적으로 허기를 유발한다. 이때 타이밍 맞게 제공된 따끈하고 말랑한 옥수수의 맛은 일품이었다. 물놀이가 너무 재미있는 나머지, 원래 계획했던 수목원 산책순서를 생략하고 수영 릴레이와 수구 2차전까지 하고 내려왔다.

저녁 시간에는 8·15 광복절 특별찬양 순서를 위한 연습이 있었다. 광복절 찬양은 새남이 창단 이듬해부터 매년 주관해 온 자랑스런 전통이다. 평소와 달리 티셔츠에 샌달 등 자유로운 복장이지만 모두들 연습에 몰입해 들어갔고 그 사이 창밖의 절경, 운악산 자락은 조용히 어둠에 묻혀 갔다.



◇ 새문안 수양관 수영장에서 수구를 하고 있는 새남찬양대 대원들.

찬양 연습에 이어 또 푸짐한 간식들을 즐긴 후 김홍배 집사의 사회로 대원들의 5분 스피치를 통해 찬양생활에 관한 간증과 애환을 나누었다. Carolyn과 Shalom 선교사는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찬양을 드리고 “좋으신 하나님”(Mengu Yu Mema)을 스와힐리어로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잘 모르던 대원들도 서로 이해하게 되고 새록새록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서울에서는 연일 열대야로 괴로웠건만 이 곳 수양관은 마치 다른 나라의 기후인양 서늘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지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 이 곳이 마치 성산(聖山)인가 싶다. 어느 집사님은 이 좋은 곳을 외부 목회자들의 연수처로 제공하는 등 연중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이튿날 식전 예배. 지휘자 강영모 집사가 무반주로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로 특송을 드렸고 이

정배 지도목사가 설교해 주셨다. 이른 아침이니만큼 짧게 메시지를 전달하겠거니 했던 것은 전적으로 오산이었다. 예배소서 5장 15~21절을 본문으로 한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그렇듯 잔잔하고 유장하게 이어졌다. 예배 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언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하고 물으니 목사님은 빙그레 웃시며 “미리 준비해 놓았지요” 하셨다. 우리는 그저 즐겁게 놀러 왔지만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말씀을 부어 주려고 작심하고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수련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주일을 맞은 새남 대원들은 피곤을 잊은 듯 어느새 말쑥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교회 각 부서에서 바빠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복도에서, 마당에서 서로 마주치며 나누는 악수와 눈빛들에는 짧은 수련회를 통해 훨씬 더 신뢰와 행복함이 담겨 있었다고 확신한다.

<정리 : 전종우 집사 >

새문안찬양대

칭찬하고 위로하며 은혜 나누는 수련회

긴 휴가 행렬을 뚫고 짐통 서울을 떠나 숲으로 들어섰다. 녹음 짙은 대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듯 했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2박 3일의 천국잔치가 시작되었다. 맹호포병삼선교회 저녁예배 휴가 행렬과 귀가

행렬이 맞물리는 길을 어렵게 빠져나와 리허설도 하지 못한 채 찬양을 했다. 중창팀 ‘onsingers(언싱어)’의 2번째 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3백여명의 장정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고, 병영 생활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드렸다.

첫 조별모임(진행 정준섭 집사)의 철저한 준비로 자기를 돌아보고, 같은 조의 형제, 자매들의 고백을 통해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시간이었다. 싱그러운 새벽을 깨우는 찬양소리와 함께 시작한 경건의 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녹음을 바라보며 먹은 만나들은 얼마나 맛있던지...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송영진 집사의 인도로 진행된

‘CCM 따라하기’는 모두의 마음

을 평안하고 따뜻하게 해 주었으며, ‘음악 CAMP’를 통해 발성과 호흡법을 연습하며 그 동안 잘못해 왔던 부분들을 깨닫고 더 나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다.

독특한 경력의 최민준 목사(홍대미대 졸업 후 선한이웃교회 목양)께서 진행해 주신 ‘기독교 미술을 통해 본 영성’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 천재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이미 중세암흑기 천주교 1천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려는 작은 움직임들이 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색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교회 내부 인테리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미술을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을 대할 수 있게 한 색다른 시간이었다.

‘은혜나누기’ 시간에는 몽골 선교를 다녀오신 주선숙 집사가 그 곳의 실상을 알려주어 그 곳을 여러 모양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였다.

‘찬양과 함께하는 기도의 밤’에서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내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한 기도를 통해 눈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조별 모임은 이제까지 알고 보아온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쪽지에 적어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칭찬과 위로와 격려하는 글들을 쓰며 마지막 날 여름밤은 깊어 갔다.



◇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수련회에 참여한 새은 찬양대원들.

“Trust in the Lord. Commit your way.”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새날을 열었다.

아침이슬을 밟으며 전체 사진도 찍고, 뒷산 쉼터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서로 작성했던 나눔의 글들을 발표하며 서로 은혜받는 시간이었다.

“안했더라면 후회했겠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재치와 기지가 번득인 조별 발표회.

준비없이 주어진 1시간 동안 받은 은혜를, 받은 기쁨을,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도 웃기는 춤 6가지를 얼굴 표정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추신 口권사님, 커다란 덩치에 액션 큰 춤을 잘 소화해 내신 ㅈ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모두 배꼽쥐고 은혜받는 시간이었다. 이청근 목사의 꼼꼼한 심사평에 이어 시상된 ‘사다리 1등’은 조별 발표가 얼마나 치열한 접전이었는지를 반증한다. 수영장 한 번 못 들어가 보고 쫓겨나듯 수양관을 나왔지만 우린 많은 것을 안고 한 여름의 끝을 달려, 내려오고 싶지 않은 동산을 내려왔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⁴¹

<글 : 박수현 집사>

한기림찬양대

찬양대원의 소명을 다시 확인한 수련회

많은 한기림 수련회를 참석했지만 실제로 준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준비과정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준비 및 참여 등으로 도와주신 유영일 목사, 노재영 장로, 김형찬 선생, 장연진 선생과 임원들, 그리고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하계 수련회의 목표는 첫날의 맹호 포병삼선교회에서의 찬양을 통해 음악 선교로서 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군생활을 위문하며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세 가지 특강을 통해 찬양대원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예배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목표에 더하여 집회를 통한 한기림 내의 영적 하나됨과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통한 대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들을 전하면서 수련회 감상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기림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영화 중에 앤디가 동료들을 위해 교도소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틀어준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찬양은 참된 자유를 회구하는 병사들에게 단비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육체적으로 통제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맹호포병삼선교회 정용암 목사 “한기림 초대의 글” 중에서>



◇ 마른뺨에 생기를 불어넣는 마음으로 더욱 진실되게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한기림 찬양대 대원들.

악보에 그려져 있는 음표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죽은 뼈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성과 찬양대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음악성이 없다면 이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맞추고 살을 붙여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예본 찬양대 김명엽 장로 강의 ‘찬양대원의 사명’ 중에서>

한기림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던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지휘자선생님, 반주자와 파트장들은 7일째에 나팔을 일제히 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팔소리와 함께 질렀던 합성이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앞으로 청년 예배는 집회 형식을 가미한 형태로 변화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관련된 부서들간의 대화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청년 2부 연합찬양팀 안기문 전도사 강의 “대예배의 다이나믹스” 중에서> **☞**

결정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훈련

청년 3부 여름 가족 캠프



공민호 집사
(청년3부 회장)

청년 3부 여름 가족 캠프를 준비하면서 나의 수련회 참가는 멀고도 힘들었다. 회원들 각자의 이야기를 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날짜가 문제였다.

원래 연초 계획은 8월5일(목)부터 7일(토)까지였으나, 수양관에 알아보니 다른 부서와 일정이 많이 겹쳤다. 박성현 부장과 상의하여 한직한 일정으로 피해보니, 공교롭게도 8월3일(화)부터 5일(목)뿐이어서 어중간했다.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참석하는 대다수가 여름휴가를 대신해서 부인과 자녀들이 같이 참석하던터라, 화·수·목은 아무래도 목·금·토보다는 호응도가 떨어지겠다 싶었다. 그러나 모처럼 오는 회원들에게 번잡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번잡하게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충분한 휴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게 좋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나니, 8월 3·4·5일로 결정이 쉬어졌고, 마음도 한결 후련했다.

미리 청삼 중보기도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익히 느끼던 것이지만, 사회적 현실이 너무 어렵다 싶었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회원들이 너무 찌들어 있음을 많이 보아왔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바로 '치유'였다. 왜냐하면, 청삼 회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갈등, 조기 퇴직·감원의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들이 청삼회원들을 짓누르고 있었습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삼 GBS 리더들의 중보기도 수첩에 빼곡히 적어 놓고 매주 세 번씩 기도하지만 역부족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공동체의 사랑으로 풀어보려고 강연준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란 주제하에 한번 해보자 마음을 모았다. 작년에 호응

이 컸던 조별 장기자랑시간(하늘나라의 개그 콘서트)도 과감히 시간표에서 삭제하였다. 마음을 다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시간을 '기도와 나눔의 시간'으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특강시간 모두를 '경배와 찬양1·2'로 과감하게 바꾸었다. 수동적으로 듣는 특강 대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찬양으로 대체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찬 용기를 얻고자 하였다. 미리 청삼 리조이스에게 이러한 계획을 전달하였고 그들은 충실히 4주간 성실히 연습을 하였다.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열어 주었고, 프로그램을 전혀 잡지 않았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나니 이래도 되나 싶었다.

그래도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다.

청삼 가족에 딸린 자녀들이 문제였다.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는데, 외부강사 섭외가 잘되지 않았다. 원래 여름 수련회기간 동안만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폭빠지고자, 그리고 오전 GBS시간과 저녁 경배와 찬양 시간만큼은 회원들을 아이들로부터 해방(?)시키자는 데 어린이 프로그램 마련의 의미가 있던 것이라 어린이 프로그램 아웃소싱은 절대 필요했다. 유아1·2부, 유치부, 다른 교회 등을 알아봐도, 선택나서는 이들이 없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하며 매주 마음을 줄이며 기도하던 중, 저희들의 기도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떠나기 3일전, 중·고등부선생님 세분을 섭외할 수 있게 해주셨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준비된 청삼 여름 수련회는 8월3일부터 끝날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들이 우리의 모임 속에 폭포수같이 넘쳤다. 도착하여 짐 풀고 나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첫째날, 경배와 찬양 첫째시간부터 청삼 리조이스 찬양은 참석한 모든 회원들



을 기쁘고 감동하게 하였고, 이어 강연준 목사의 말씀은 심부를 쪼개어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특히 “하나님은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우리들은 또한 결정적인 응답(헌신)을 해야한다.”는 이 대목에서 많은 회원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울음속에 섞인, 결정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현리의 밤을 달구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요구하실 때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내 삶의 영역에 오셔서 우상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갖지 않으시겠다는 그 요구, 그 요구를 이제는 나 받아드리리라! 많은 회원들은 이 한 대목에서 무릎 꿇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라는 찬양 속에서 청삼 가족들의 가정, 교회, 직장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녹아갔다. 밤늦게까지 열린 ‘기도와 나눔의 시간’은 이런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 동안 방황하며 세상과 같이 살다가 이제야 돌아와 어렵게 휴가를 내어 참석한 부부, 하던 빵집이 잘 안되어

권리금 받고 넘긴 후 오직 하나님 한분께 의지하고 참대한 부부, 직장 때문에 남편과 주말부부하며 직장을 옮겨 달라고, 같이 오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 남편의 성격이 청삼 GBS속에서 점점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회원들의 고백을 밤새 나누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다짐을 해 보았다.

네 조로 나누어 GBS리더들 인도하에 진행하였는데 9시 30분에 시작된 것이 12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동체의 치유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 주고, 공감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들리기로는 새벽 3시까지 소곤소곤거렸다고 한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만 가득차있습니까, 아니면 다른것과 더불어 있습니까? 연약한 청삼(chungsam)이었지만, 소박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드릴 때, 그 분은 따뜻한 용서와 치유로 다가오셨다.

청삼 속에 인간적인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삼 속에 모나고 거침없는 말을 함부로 하여 아픈 상처가 자주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곳, 그리고 그곳에 기름부음이 있었다. **☞**

◇ 푸른 선교 현장 ◇

‘두나미스’ 단기 선교단이 여름동안 네팔, 러시아, 베트남, 일본 4개국으로 각각 선교단을 파송했다. 《새문안》지는 9월호, 10월호에 걸쳐 이들의 선교현장보고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네팔에 주님나라 임하소서!

장지훈 교우(청년 1부)

2004년 상반기를 쏟아 부어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착한 네팔 땅. 흔히들 네팔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만난 그 땅의 첫 느낌은 ‘황량함’이었다. 흙먼지를 날리며 달리는 자동차들엔 발 밑을 틔도 없이 뺨뺨이 사람들이 차있었고,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듯한 무질서한 거리엔 뗏국이 흐르는 아이들과 영세한 상점들이 즐비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들의 눈빛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 개월을 기대하며 찾아갔던 그 땅의 첫 모습은 그랬다. 그리고 그 모습에 우린 많이 아팠다...

가슴 아픈 첫인상 후 네팔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은 첫인상 이상 가는 것들이었다. 이른 새벽 한낱 쇠붙이에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 산을 오르며 우상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아무런 기쁨도 없이 찬양을 올려드리던 힌두의 악사들, 현세에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다음 생에는 조금 더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힌두교 신자들과 갠지즈 강에 자신들의 똥가루를 뿌리는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네팔인들, 인간의 삶이라고는 보기 힘든 빈민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처참할 정도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아이들. 성 육신한 힌두의 여신이라는 꼬마 여자아이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 아이의 신전을 지키던 제사장의 눈빛. 거리를 가득 채운 온갖 우상과 잡신들의 신전들... 참람한 모습이였다.

만일 사람의 마음에도 명이 들 수 있다면, 그 느낌은 아마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9박 10일의 짧은 기간. 그곳에서 만난 이들은 단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소망 없이 죽어가야 하는 그들을 보며, 그들의 공허한 눈빛과,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보며 자꾸만 내 속엔 울음이 쌓여갔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지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 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네팔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공허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마음에萌든 네팔 사람들 사이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속으로 속으로 마음이 상해갔다. 견고한 성벽과 같이 진리가 철저히 가리워지고, 3천 3백만의 우상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속박하고 결박해버린 그 땅의 황무함 가운데서 난 그냥 폭 주저 앉아 버리고 싶었다. ‘오 하나님 이 곳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눈앞의 상황을 보며 마음속에선 계속 이런 질문이 쏟아졌다. 가슴이 아팠고, ‘부흥’이라는 찬양의 가

사 한마디 한마디가 네팔 땅을 향한 기도가 되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경의 불 입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경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입하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셨 듯, 네팔 땅 가운데에도 힌두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은 주님의 종들을 남겨두셨음을 보여 주셨다.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치유해가고 계셨고, 여리고 성벽과 같은 견고한 진에 수많은 구멍들을 내고 계셨다. 그들의 간증과 삶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통해 네팔 땅에 드러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네팔 땅을 사랑하고 계셨으며, 우리는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팀은 빈민촌에 있는 마라나타(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교회에 페인트를 칠하며 그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차게 되기를 기도했고, 빈민촌에 방역사역을 하며, 더러운 세균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우상까지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했다. 아이들의 떡진 머리를 자르며 그들이 이 교회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했으며, 여름 성경학교에 찾아온 400여명의 아이들 한명 한명의 손을 십자가 위에 찍어주며 그들의 마음속에도 십자가가 새겨

지기를 기도했다.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든 아이들의 손목에 영접팔찌를 끼워주며, 그들의 평생을 통해 그 영접함이 기억되기를 기도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교회에서 뛰놀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붙잡고 얼굴을 닦아주며, 이 아이가 훗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했다. 우리 작은 일들을 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엔 간절함이 있었다. 우리의 멍든 가슴은 기초가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목상하며 소망으로 차츰 치유되어 갔고, 우리 안에 쌓여있던 눈물은 주님의 종들을 보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흘러내렸다.

마치며...



◇ 네팔팀 선교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선교팀.

올 여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새문안 교회가 앞으로도 그 필요에 계속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셨던 마음을 이 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리가 없는 그 황무한 땅을 바라보고 계신 그분의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현지 선교사님 댁에 걸려있던 한 액자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 액자의 글귀처럼 지금도 그 땅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신 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그 땅을 위해 중보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치열한 영적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우고 계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시간을 떼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은 가족이 다 함께 풀어봅시다.
 ■성경 퀴즈는 『개역개정판』 성경전서에서 출제됩니다.

<출제: 서경애 권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성 명

■마감일 : 2004년 9월 19일
 ■보낼 곳 : 제3교육관 203호 홍보출판부

【가로 열쇠】

- ①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하시야 왕이 죽은 후 그 왕자를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7년간 제위한 유다왕중의 유일한 여왕 (왕하 11:1~)
- ③ 그들라오벨 동맹군의 전쟁터. 가데스와 같은곳(창 14:7)
- ⑤ 거짓 예언자 발람의 고향(신23:4)
- ⑥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가에 나타나실 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 (요21:1~2)
- ⑦ 유다 사람 살룸의 아들(대상 2:41)
- ⑨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반열의 열아홉째 사람(대상 24:16)

- ⑫ 잠언 31장의 작가.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교훈을 기록했다(잠31:1~4)
- ⑬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교인(롬16:9)
- ⑮ 유다의 아들 셀라의 후손 중 에르의 아들(대상 4:21)
- ⑰ 다윗의 자손 스마야의 셋째 아들(대상 3:22)
- ⑱ 예수님의 계보 중 한사람. 스알디엘의 아버지(눅 3:27)

【세로 열쇠】

- ②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아람어로 하신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의 뜻(막 5:41)
- ③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던 곳(삼상 28: 7)
- ④ 유다 광야에 있던 성읍(수 15:61)
- 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맞아 낳은 아들 중 열두번째 아들의 이름은?(대상 14:7)
- ⑦ 다윗시대 시위대장 브나야의 아버지(삼하 8:18)
- ⑧ 로마의 성도 바울의 동역자(롬 16:9)
- ⑨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곳(삼상 8:2)
- ⑩ 병들어 여호와께 기도하므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왕
- ⑪ 너물은 밝은 자의 ○을 어렵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굵게 하느니라
- ⑭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의 고향(마 27:32)
- ⑯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이곳 사람들의 백부장들이 여호와와 전에서 맹세했다.(왕하 11:4)

▶성경 퀴즈 109 정답

아	하	시	아		혁	가	윤
구	스		라	마		말	
스	나	아		앗	사	리	온
도	아		니		라	엘	
		요	게	벳			부
살	마		르	바	나		라
스	라	야		게	하	라	심
김		습	빔		스	마	

정답자는 43명입니다. 정답자에게는 홍보출판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참가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 | | | | | |
|-----|------|-----|------|-----|
| 강양자 | 김성은 | 김소자 | 김순자5 | 김인혜 |
| 김행자 | 김혜자1 | 노병숙 | 마춘련 | 민영숙 |
| 박연순 | 박이주 | 배명자 | 송은숙 | 신선자 |
| 신선희 | 신외숙 | 양인석 | 양정웅 | 윤영희 |
| 윤정숙 | 이숙봉 | 이지석 | 이춘애 | 장정원 |
| 전명숙 | 전하준 | 전현숙 | 정재일 | 조영희 |
| 최성갑 | 최은섭 | 허귀임 | 현수원 | 홍성남 |
| 홍성자 | 홍성주 | 홍지영 | 김덕청 | 김명희 |
| 권혁중 | 김복순 | 김도선 | | |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



백승현 안수집사
(경희대학교 교수)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민간 여객기를 납치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D.C.의 펜타곤 건물에 자폭 충돌시킴으로써 2천 8백여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대참화(大慘禍)인 9·11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어떤 이유와 동기에서건 그 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명사회의 이념에 반하는 엄청난 일이었다.

이처럼 끔찍한 테러공격을 감행하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동기와 목표는 무엇이고, 그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들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지난 25년 사이에 크게 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테러 사고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후 공산권 해체와 더불어 냉전 차원의 국제테러가 사라진 대신,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특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증대되어 왔다.

더욱이 일부 국가들이 그들에게 자금·무기·훈련캠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응징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이 반(反)테러행동을 벌이게 되고, 다시 이에 대항해 국제테러활동은 전보다 더 위협하고 무차별적이며 대응이 어려운 수준으로 변모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또 테러공격은 인명살상 면에서 더욱 잔인·흉포·대량화되고 있다. 1970~80년대의 테러조직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기에 세상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또한 대중적 지지를 잃지 않을 정도로만 인명을 살상하며 공격을 감행하였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공화군(IRA)이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등은 이런 행동을 통해 종종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능한 많은 인명살상을 노려 감행하는 테러공격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테러사고들은 20년 전에 비해 평균 약 20% 이상 증가된 인명살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살상율은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의 동기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 카에다나 체첸 저항세력처럼 종교적 토대가 강한 테러조직들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증오가 그 동기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요즘 테러조직들은 대중적 지지 확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적을 징벌하려 하고, 전세계로 공포를 확산하여 미국 등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못하게 하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테러조직은 점점 더 정치적 요구사항의 목록이나 책임추궁적 주장들을 늘어놓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점에서는 독립쟁취의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체첸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토대 위에 결성된 테러조직은 그 구성원의 국적이 여러 나라에 속한 초국가적 테러조직 양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따라서 특별한 정치적 또는 민족주의적 아젠다(agenda : 행동 지침)를 갖고 있지 않은 게 보통이다. 그런 조직은 오로지 미국과 같은 적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공동의 동기와 동일 감정을 공유하는 다국적 조직원들의 느슨한 결합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혹 알 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이 어느 날 사라진다 해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저항하는 잠재적 테러공격 위협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종종 특정 인종집단이나 종교 또는 국가 전체 등을 위해 자신들이 행동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틀리다. 테러조직들은 결코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나 속한 인종집단 또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집단 중 아주 작은 분파를 대표할 뿐이다. 그러므로,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반테러행위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것이 결코 어떤 특정 인종이나 종교 또는 계층에 대한 차별의 구실로 사용되어서

는 안된다. 그들은 단지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테리’(또는 테러리즘)란 보통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 등 공포수단을 사용하여 소기의 목표나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살상·폭력·위협 등 끔찍한 수단을 수반하는 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 정의에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차이와 이견이 있어 왔다. 같은 사건을 두고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는 측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범죄로,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기 위한 투쟁이자, 애국적 또는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9·11 테리 참상을 화면으로 보며 중동지역 일부에서는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국민 중에도 반미(反美)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과응보”라며 테리행위를 두둔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7월 하순, 이라크내 테리집단에 의해 납치됐던 김선일씨가 끝내 잔혹하게 살해됐을 때도, 진보적 문인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는 테리집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김선일씨의 납치를 비난할 입장이 못 된다. 부도덕한 전쟁을 획책한 미국편에 서서 과병을 결정해 침략군이자 점령군인 미군에게 힘을 실어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진보적 원로인사들도 “이라크가...민족정신으로 자주적 항거를 벌이는 곳에 이라크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군이 미군편에서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우리를 똑같은 적으로 간주하여 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타국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진 알 카에다 등 이라크 내 테리집단을 ‘자주적’ 항거세력으로 미화하며 테리집단과 이라크 국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테리조직에 참여하거나 테러리즘에 동조적이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테러리스트들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또는 종교적 확신에서 테리활동을 한다. 그들 중 일부는 단순히 고용된 범죄자들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박해나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나 동기도 결코 테러리즘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아무리 명분이 정당하고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노린 항공기 납치폭파나 건물폭파,



↑9·11테리로 폐허가 된 뉴욕의 월드트레이드 센터.



→철조망너머 9·11 폐허를 바라보는 관광객들.

무고한 시민의 납치살해, 자살폭탄 테리 등 무차별적 테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테리는 비(非)인간적·비(非)인륜적 만행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된 테리공격에 대해 이슬람권에서조차 만행으로 규탄하는 반응들이 나오는 점에 비춰볼 때, 테리는 어느 문화권이나 종교에서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혹자는 아벨을 죽인 가인(창 4:1~15)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자 테러리스트라고도 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레 24:17~21)’라는 동해(同害) 보복법, 이른바 ‘탈리온(talion)의 법칙’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이 테러리즘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전체적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채, 단지 몇 구절을 축조적(逐條的)으로 받아들이는 물이해에서 비롯된 오류라 할 수 있다. 가인의 단순살인과 테리가 같은 것일 수 없으며, 또 ‘탈리온 법칙’의 근본정신은 동해(同害) 보복 자체, 즉 범죄에 상응하는 징벌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보복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과 테러리즘은 결코 연관될 수 없다. **☞**


어머니교회

1887년,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는 몹시 혼탁하였고, 어수선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삶은 무지와 가난뿐이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첫 발을 디뎠고, 처음으로 조직교회로서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다. 해마다 9월17일은 새문안교회의 생일이며, 금년은 새문안교회가 세워진 지 117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국의 어머니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어머니란 무엇을 말할까? 어머니란 사랑이며, 힘이며, 모든 것을 풀어주는 안식처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을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광화문 도심 중심에 있다. 그래서 목요직장예배도 있고, 많은 직장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점심도 함께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받을 디딜 수 있는 교회이다.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이 자리에 처음으로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닐까.

도심 속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인근 빌딩 숲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사랑이 그리워서,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그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피곤한 영혼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뜻이 아닐까. 어머니 품 같은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 하나하나가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인이 되어야겠다.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 전철 안에서나 버스를 탔을 때 “권사님, 짐사님!” 하며 이야기하는 음성도 조용조용하며 아름다워야 하겠다. 그 외에도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아주 사소한 질서와 규범 하나하나를 잘 지킬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전도가 아닐까?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들 때, 그것이 바로 어머니교회의 교인이며, 117년의 긴 역사를 가진 어머니다운 교회가 아닐까. 

<박은숙 권사>

.....

